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본연구 98-05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9. 5

충 남 발 전 연 구 원

## 발 간 사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문화의 터전입니다. 한강유역에서 성장한 백제는 우리 고장 충청남도에서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고, 당시의 찬란한 백제문화의 흔적은 지금도 우리 고장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문화는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을 뿐 그것이 한번도 종합적으로 모아져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몇 발견된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선진적이었던 백제문화를 추정해 보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연 우리의 백제문화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자체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바로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고, 인정받지 못해왔던 백제문화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같은 것입니다.

백제문화는 신라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민족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근간의 하나입니다. 또한 백제문화는 이웃한 일본의 고대문화를 발아(發芽)시킨 온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제문화의 내용을 한곳에서 재현하여 온 국민이 함께 보고, 느끼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완성되면 우리는 문화 선진국으로써의 자부심을 한껏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자 조심스럽고, 철저를 기해야 할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칫 의미만 강조한 나머지, 또한 이제서야 백제문화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만을 앞세운 나머지 고증작업과 재현작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자체가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서정석 연구원의 논문은 그런 점에서 개발사업에 앞서 참고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작업과 달리 문화재에 대한 복원이나 정비 작업은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원이나 정비·재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 전문가·공무원 그리고 자료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학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한 서정석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1999년 5월

충남발전연구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황 용 주

황 용 주

# 목 차

<b>제 1 장 머리말</b>	<b>1</b>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 방법	3
<b>제 2 장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 현황</b>	<b>5</b>
제1절 시기별 조사현황	7
1. 조사 1기(1915~1945)	7
2. 조사 2기(1946~1970)	14
3. 조사 3기(1971~1998)	17
제2절 구제발굴 조사현황	30
<b>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b>	<b>39</b>
제1절 조사의 문제점	39
제2절 향후 대책	52
1. 단기적인 대안 검토	53
2. 장기적인 대안 검토	77
<b>제 4 장 결 론</b>	<b>89</b>
제1절 결론	89
제2절 제안	90
<b>참고문헌</b>	<b>93</b>

# 제 1 장 머 리 말

##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정부는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문화의 개발과 전승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아닌가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는 신라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역시 신라문화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시책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또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꾀하기 위해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민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기대를 걸고, 또 관심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한마디로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표에 자못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sup>1)</sup>

그 하나는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는 당시의 문화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보존과 정비가 단순히 문화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요에 의한 경제성의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리라는 기대감이다.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고 당시의 문화내용을 잘 보존하는 일은 백제문화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그 동안 빈약한 연구자료에 허덕여 왔던 학계에서는 이번 개발사업을 계기로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혀줄 많은 자료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기대

---

1)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69쪽.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비단 백제사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의 부족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백제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기형적(畸形的)으로 성장해 왔던 우리의 고대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학계의 모든 뜻있는 학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결 도로망이 확충된다든지, 도시 경관이 정비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연결 사업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연결 사업으로 낙후되었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개발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 충남 도민들의 한결같은 기대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전혀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로 계획되어 있고,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고 당시의 문화내용을 복원할 자료들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1998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계획 내용이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도 증액되었고, 전체 사업기간과 규모가 증대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당시 문화 내용의 입증자료와 복원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개발사업의 핵심인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백제가 남긴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백제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 내용이 후대에까지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은 자료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거쳐 복원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백제는 백제 나름의 문화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는 만큼 그러한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적절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발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의 입증자료와 복원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문화유적,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시대 문화유적의 조사현황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배경으로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으로는 충남도내에서 발굴조사된 백제 문화유적을 모두 포함하며, 시간적으로는 백제유적이 근대적인 방법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일제시대부터 1998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된 유적 중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미 조사내용이 발표된 유적을 주 대상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유적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조사된 유적 중에서 고분, 사지, 성터, 건물지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는 일제시대 이후 충남지역에서 조사된 백제유적을 시기별·지역별·주제별로 정리함으로써 그 동안 조사된 백제유적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시기별로 백제유적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백제유적의 조사수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방법 또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백제유적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충남도내의 각 시·군별로 어떠한 백제유적이 남아 있고, 또 그 유적들이 얼마만큼 조사되었는가를 통해 그 동안 백제유적을 조사해 오면서 지역적인 편중성은 없었는지, 지역별 특성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조사된 백제유적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별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분, 사지, 성터, 건물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백제유적을 주제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치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우치게 조사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함이다.

사실, 유적조사에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적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된 백제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새로운 개선점을 제시할 때에도 반드시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예산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조사 작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유적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예산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매년 새롭게 예산이 결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행정당국이나 실제로 유적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는 학계나 모두가 장기적이고, 일정한 방향성 있는 조사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러한 예산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할 입장도 못되거니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면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백제유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실에 입각하여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 제 1 절 시기별 조사 현황

충남지역은 백제 중기(웅진)와 후기(사비)의 도읍지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유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은 특히 당시의 도읍이 있었던 공주와 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유적을 정비·복원하는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는 부여에 따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백제문화를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백제역사촌은 7개의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sup>

개 국 촌 : 백제 개국초의 생활상 재현

왕 궁 촌 : 백제의 왕도 입지, 궁궐 등의 모습을 재현

전통민속촌 :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 마을로 복원

산업교역촌 : 전통농업, 공업, 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

군사통신촌 : 백제시대의 무기와 축성 등

풍속종교촌 : 백제 이래 충남의 전통민속행사를 통한 볼거리 제공

장제묘지촌 : 백제의 장제와 묘제 재현

이러한 백제 역사촌의 재현은 백제문화권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볼거리를

---

2) 忠淸南道, 『百濟文化圈 特定地域 綜合開發 基本設計 報告書』(백제역사촌), 1993, 114 - 120쪽.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풍성하게 하고, 백제사와 백제문화의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분명히 백제문화권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기대감 못지 않게 우려되는 점도 한 둘이 아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촌을 효과적으로 장식할 자료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촌이나 산업교역촌의 경우에는 아예 백제시대라는 시대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니와 이 외에도 개국촌이나 왕궁촌, 군사통신촌 등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백제유적이 조사된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역사촌이 효과적으로 재현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현에 앞서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 수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른 관광지와 구별되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통한 종합개발 사업은 신라의 도움이었던 경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2년부터 대략 10년간의 사업으로 경주는 문화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나름대로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공주·부여 등의 백제문화권지역은 남아 있는 문화재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게다가 신라와 달리 백제는 천도(遷都)를 거듭함에 따라 관련 유적이 서울·공주·부여·익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등의 몇 가지 이유로 개발의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도 절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모두가 환영하고, 그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큼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충남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은 어떠한가. 근대적인 방법으로 백제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한 일제시대부터 1997

년까지 조사된 백제유적의 내용을 몇 개의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지역에서 백제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미 19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보아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sup> 1시기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로 일제에 의해 백제유적이 조사된 시기를 의미한다. 자연히 2시기와 3시기는 해방 후 우리 학자들의 손에 의해 백제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한 시기로, 편의상 1945년부터 1971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하고, 1971년 이후를 또 하나의 시기로 본다.

1971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해에 무령왕릉(武寧王陵)이 발굴되었고, 이로 인해 백제사 및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 조사, 연구 등이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크게 고조되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3시기로 나누어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조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문제점 점검 및 대안 마련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유의하면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사 1기(1915 ~ 1945)

이 시기는 근대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日帝)에 의해 근대적인 유물·유적의 조사 방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과거 역사의 물적 증거인 유물·유적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연구의 방법이 처음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그 자체 특기할 만한 것이었으나 조사가 우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시작됨으로써 백제사나 백

---

3) 이남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현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3권 4호(통권 10호), 1997, 42~50쪽.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제문화의 실체를 밝히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정당성이나 일인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아쉬움을 남겼다.

조사 목적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했던 만큼 이 시기의 조사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간단한 것이었으며, 연구 또한 개별 사실의 나열이나 빈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결론의 도출이 대부분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사지역은 공주와 부여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대상 분야도 고분(古墳)과 사지(寺址)가 전부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제시대에 백제유적이 처음으로 조사된 것은 1915년부터인데, 이 때 구로이타(黑板勝美)에 의해 조사된 것이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中下塚(2호분)과 西下塚(3호분)이었다. 이어서 1916년에는 세키노(關野貞)에 의해 中上塚(5호분) 1기가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1917년에는 다시 야스이(谷井濟一)에 의해 東下塚(1호분)과 西上塚(4호분), 東上塚(6호분) 등이 조사됨으로써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짓게 되었다.<sup>4)</sup>

1927년부터는 공주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능산리고분과 마찬가지로 웅진시대 백제 왕릉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조사는 조선시대 지리서에서부터 왕릉으로 전해오는 송산리고분군에 집중되었고,<sup>5)</sup> 그 결과 송산리고분군내의 1 - 5호분이 발굴·조사됨으로써 송산리고분군도 웅진시대 백제왕릉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sup>6)</sup> 1932~1933년에는 같은 송산리고분군내에 있는 6호 전축분이 발견되어 송산리고분군이 웅진시대 백제왕릉군임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1971년에 마침내 무령왕릉이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추정은 실제 사실로 확증되었다.

이처럼 근대적인 고고학적 방법이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였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조사가 전적으로 일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

4) 조선총독부, **대정육년도고적조사보고**, 1917,

5) **신증동국여지승람**, 「公州牧」, 學校條. “鄉校 在州西三里 西有古陵基 諺傳百濟王陵未知何王”

6) 조선총독부, **소화이년도고적조사보고**, 1927,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지역이 공주와 부여에 한정되었고, 조사 분야도 고분유적에 집중되는 편향성을 보였다. 앞에서 표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지표조사를 포함해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모두 66회에 달한다.

<표 2-1> 조사 1기의 충남지역 유적 조사 현황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	1909년	부여 능산리고분군	『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
2	1913년	"	『朝鮮古蹟圖譜』 3
3		공주 공산성 조사	"
4		부여 부소산성 조사	"
5		부여 성흥산성 조사	"
6		부여 정림사지석탑	『朝鮮古蹟圖譜解説』
7		무량사 및 5층석탑	"
8		보령 성주사지석탑	"
9		공주 신원사5층석탑	"
10		공주 마곡사5층석탑	『朝鮮古蹟圖譜解説』 6
11		논산 개태사지석탑	"
12		논산 관촉사 및 석탑	"
13		천안 천흥사지 중	『朝鮮古蹟圖譜』 7
14		부여 대조사석조미륵상	
15		부여 금성산 서남북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6		고란사석조약사여래좌상	
17		고란사석조미륵보살입상	
18	1917년	부여능산리고분군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발굴조사
19		천안 성산성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20		천안 천흥사지5층석탑	"
21		봉선 흥경사비	"
22		공주 공산성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23		공주 마곡사	"
24		공주 갑사부도, 妹兄塔	"
25		공주 동학사	"
26		부여 부소산성	"
27		부여 나성	"
28		부여 청마산성	"
29		부여 성흥산성	"
30		부여 정림사탑	"
31		부여 유인원기공비	"
32	1917년	부여 홍량리5층석탑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33		부여 대조사 석탑재	"
34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35		부여 금성산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
36		부여 동남리 석조 여래좌상	"
37		부여 읍내의 석조, 초석	"
38		청양 우산성	"
39		청양 관비산토성	"
40		청양 천마봉토성	"
41		청양 연치산토성	"
42		청양면 장성	"
43		청양 두릉윤성	"
44		청양 지곡리토성	"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45	1917년	청양 벽천리 석충군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46		청양 역촌리 전왕릉	''
47		청양 석조석가삼존입상	''
48		청양 삼층석탑	''
49		청양 서정리9층석탑	''
50		논산 북산성	''
51		논산 북산성서남고분군	''
52		논산 개태사지	''
53	1927년	공주 송산리고분군	『昭和2年度古蹟調査報告』 제 2권, 1호분, 2호분, 5호분 수습 발굴
54		공주 금성동고분군	『昭和2年度古蹟調査報告』, 1호분발굴
55		공주 학봉리 요지	『昭和2年度古蹟調査報告』
56	1933년	공주 송산리고분군	泉顯夫, 『朝鮮古代遺蹟の遍歴』, 6호분 발굴조사
57	1935년	부여 군수리사지	金元龍, 『한국고고학개론』(日語版), 1차 발굴
58	1936년	부여 군수리사지	『昭和11年度古蹟調査報告』, 2차발굴
59	1937년	부여 규암리사지	'' , 발굴조사
60		부여 능산리동고분군	『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 발굴조사
61	1940년	부여 동남리사지	『昭和13年度古蹟調査報告』, 발굴조사
62		부여 佳塔里寺址	시굴조사
63		부여 능산리동고분군	金元龍, 『한국고고학개론』(日語版), 발굴조사
64	?	부여 佳塔里窯址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蹟の遍歴』
65	?	부여 西腹寺址	''
66	1943년	扶餘 定林寺址	'' , 발굴

이 중 공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11회이고, 부여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33회였다. 두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조사가 모두 44회로 전체조사의 66.6%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많은 조사내용중 발굴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분은 12건 중 6건으로 전체 조사의 50%에 해당된다. 나머지 50%는 사지였던 것을 보면 고분과 사지에 당시의 조사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당시 일본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일본인들의 관심분야만이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의 집중적인 백제고분의 조사를 통해 백제고분의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고,<sup>7)</sup> 그것이 해방 후까지 한 동안 백제고분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복원이라는 조사 본래의 목적은 도외시한 채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 및 사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조사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이 때의 이러한 조사 관행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조사지역은 공주와 부여가 압도적으로 많고, 조사 방법 역시 유물을 중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 중 한 가지 위안을 찾는다면 1935년부터 백제 사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맨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여 읍내에 있는 군수리사지였는데,<sup>8)</sup> 이를 통해서 백제 사찰의 가람배치 방법이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와당을 비롯한 연화문과 인동문이 장식된 상자형의 벽돌 등이 발굴됨으로써 차후 이 분야 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보물 330호로 지정된 군수리 금동미륵보살입상과 보물 329호로 지정된 군수리 석조여래좌상 등 2점의 대표적인 백제 불상도 출토되어 이후 불상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sup>9)</sup>

군수리사지에 대한 조사는 백제 사지로써는 최초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7) ①輕部慈恩, “公州における百濟古墳”, 考古學雜誌 24~23, 1934.

② ———, 百濟遺蹟の研究, 1971.

8) 조선고적연구회, “부여군수리폐사지발굴조사”, 소화11연도고적조사보고, 1937.

9) 황수영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이처럼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이로써 이 후 백제 사지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실제로 군수리사지가 조사된 이후 같은 해에 규암리사지가 조사되었고,<sup>10)</sup> 뒤이어 1938년에는 가탑리사지,<sup>11)</sup> 동남리사지<sup>12)</sup> 등이 조사되었다. 그런가 하면 1942년에는 부소산성 서쪽에 있는 서북사지가 조사되었고,<sup>13)</sup> 1943년에는 정림사지가 발굴·조사되었다.<sup>14)</sup>

이렇게 이 시기에는 고분과 함께 사지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졌고, 이로써 백제 사지의 위치와 규모, 기본 구조 등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조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관심사였던 일본의 고대 불교에 대한 원류와 일본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의 기원지를 찾고자 하는 데에 있었을 뿐 백제사의 복원이나 백제문화의 복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사는 부여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의 지역으로는 공주지역이 추가되는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조사는 고고학적 방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데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아쉬움이 공존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문화에 대한 조사의 시작, 그를 위해 공주·부여에 남아 있는 문화재 지정작업의 시작, 그리고 실질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확인작업 등은 이후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자못 특기할 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사가 식민지시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것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고 있던 시기에 시작되어 그러한 정당화의 한 방법으로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백제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의 내용과 분야가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은 백제유적의 복원이라는 측면에

10) 조선고적연구회, **소화11연도고적조사보고**, 1937.

11) 조선고적연구회, “부여가탑리페사지의시굴”, **소화십삼년도고적조사보고**, 1940.

12) 조선고적연구회, “부여동남리페사지의발굴조사”, **소화십삼년도고적조사보고**, 1940.

13) 小泉顯夫, **조선고대유적의편력**, 1986.

14) 小泉顯夫, 주 13), 위의 책.

서 보았을 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이 때의 관심분야와 조사 방법은 해방된 이후에도 한 동안 우리 학계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만큼 이 시기의 조사 방법과 내용은 상당한 아쉬움을 갖게 한다.

### 2. 조사 2기(1946~1970)

이 시기는 해방 후 실질적인 우리 학자들 손에 의해 백제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한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1971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는 것은 이 해에 무령왕릉이 발굴됨에 따라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백제사 및 백제유적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이러한 고조된 관심을 배경으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크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조사 3기에나 가능한 것이었고, 조사 2기에는 조사 1기와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시기 동안 전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는 유적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고, 또한 새로운 조사 방법을 단시일내에 개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일본인들이 하던 것을 우리 학자의 손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뿐이지 조사방법이나 내용, 해석방법 등에 있어서 전 시기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해방과 6·25전쟁, 4·19, 5·16 등을 거치면서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문화행정은 표류하였고,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그만큼 어려움을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문화재보존령을 발표하고, 뒤이어 “물질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의 조사와 보존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다행히 남한에서도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문화재를 재정비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조사 2기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화재 조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사 2기에 진행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불과한 것이었다. 와요지가 조사되어 백제시대 기와 생산시설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확보하기도 하고,<sup>15)</sup> 백제사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백제 사찰의 가람 배치가 갖는 특징이 재확인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기간이 단지 몇일에 불과한 것이었던 만큼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의 양도 한정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태부족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하에서 유적이나 유물의 성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sup>16)</sup> 공주와 부여지역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조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었다. 표에서 보듯이 22회의 조사 중에서 공주와 부여를 벗어난 경우는 모두 7회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 유적의 2/3 이상이 공주와 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주와 부여지역이 상대적으로 백제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 초기에 이렇게 지역적인 편중성을 보인 것은 그 후의 조사진행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되었다.

또 하나, 유적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백제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조사 2기의 특징이다. 고분이나 사지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조사 1기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데, 이 조사 2기에는 이러한 사지·고분 이외에 백제시대 요지가 조사됨으로써 당시의 기와제작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지역이 공주·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유적의 종류도 고분이나 사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조사 2기의 특징이다.

15) 홍사준, 「요지」, 『부여군지』, 1985, 841쪽.

16) 예를 들어 이 시기 조사된 서혈사지의 경우 백제시대의 사지가 아닌 통일신라시대의 사지임에도 불구하고 백제시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표 2-2> 조사 2기의 충남지역 유적 조사 현황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	1962년	부여 동남리와요지	洪思俊, 「百濟瓦窯址」, 『扶餘郡誌』, 1964.
2	1963년	아산 신운리지석묘	「고고미술뉴스」, 『美術資料』 8, 1963.
3		천안 두정리주거지	尹武炳, 「天安 斗井里의 堅穴住居址」, 『美術資料』 8, 1963.
4	1964년	부여 금강사지	尹武炳, 『金剛寺』, 1969.
5		부여 임강사지	신영훈, 「扶餘 臨江寺址 發掘參加記」, 『考古美術』 52, 1964.
6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層位를 이룬 石壯里의 舊石器文化」, 『歷史學報』 35·36, 1967. 1차발굴
7	1965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層位를 이룬 石壯里의 舊石器文化」, 『歷史學報』 35·36, 1967. 2차발굴
8		논산 신기리지석묘	金載元·尹武炳, 「新基里遺蹟」, 『韓國支石墓研究』, 1967.
9	1966년	부여 금강사지	尹武炳, 『金剛寺』, 1969. 2차발굴
10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舊石器文化」, 『한국사』 1, 1974.
11		공주 시목동고분	安承周, 「公州 柿木洞古墳調査略報」, 『考古美術』 78, 1967.
12	1967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석장리의 자갈돌 짝개문화층」, 『韓國史研究』 1, 1970. 4차발굴.
13		대전 괴정동유적	李殷昌, 「大田市 槐亭洞出土 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 86, 1967.
14		공주 마암리유적	金元龍, 「公州 馬岩里洞窟遺跡豫報」, 『歷史學報』 35·36, 1967.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5	1968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舊石器文化」, 『한국사』 1, 1974.
16		서산 휴암리유적	尹武炳 外, 『休岩里』, 1990. 1·2차조사
17	1969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舊石器文化」, 『한국사』 1, 1974.
18		서산 휴암리유적	尹武炳 外, 『休岩里』, 1990. 3차조사
19		서산 명지리고분군	金永培·韓炳三, 「大山面百濟土壙墓發掘報告」, 『考古學』 2, 1969.
20		西穴寺址	安承周, 「公州 西穴寺址에 관한 調查研究(I)」, 『百濟文化』 4, 1970.
21	1970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舊石器文化」, 『한국사』 1, 1974.
22		공주 逸名寺址	朴容墳, 「公州 錦鶴洞 逸名寺址遺蹟」, 『公州教育大學論文集』 8, 1971.

### 3. 조사 3기(1971~1998)

이 시기는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역시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이며, 이 후 1978년부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증유의 국토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유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적 조사가 숫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술조사는 백제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따라서, 1978년에 공주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의 현황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980년부터 시작된 공주 공산성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인 예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이다. 10여 년에 걸친 장기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공산성내에서는 임류각지,<sup>17)</sup> 8각건물지,<sup>18)</sup> 지당<sup>19)</sup> 등이 확인됨으로써 산성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의 종류와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85 - 1986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 추정왕궁지는<sup>20)</sup> 백제유적의 내용을 입증해 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웅진시대 백제사회의 내부 모습을 살펴보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료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유적의 존재로 인해 공산성의 성격은 웅진시대 백제 왕성임이 좀더 분명해졌으며, 아울러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한성시대 백제 왕궁의 위치에 대해서도 좋은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들어서서 종래와 달리 한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속속 확인되어 유적 조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공산성 이외에도 부여의 부소산성, 백제 추정왕궁지, 나성, 그리고 천안의 사산성 등이 단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들이다. 연차적으로 그것. 교성리나 송국리 등도 다년간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 벌임. 이러한 다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종래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부소산성의 경우, 테피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결합된 이른바 복합식 산성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인데,<sup>21)</sup>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테피식 산성이 먼저 축성되고 이어서 포곡식 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발굴조사를 벌여본 결과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테피식 산성이 후대에 축성된 것이고 포곡식 산성이 백제 당시의 것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성문이라 하더라도 시대를 달리함에 따라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도

17) 안승주, 公山城, 공주사대백제문화연구소, 1982.

18) 안승주·이남석, 公山城 建物址,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7.

19) 李南奭·李勳, 公山城池塘,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20) 안승주·이남석, 公山城百濟推定王宮址發掘調査報告書, 公州大學校博物館, 1987.

21) 윤무병·성주탁, “백제산성의 신유형”, 백제연구 8, 충남대백제연구소, 1977.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부소산성의 동문지는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3> 조사 3기의 충남지역 유적 조사 현황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	1971년	공주 남산리유적	尹武炳, 「公州灘川面南山里 先史墳墓群」,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I, 1987
2		공주 석장리유적	손보기, 「舊石器文化」,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74. 8차조사
3		청양 왕진리요지	『박물관뉴스』 제 13호, 1971.
4		공주 무령왕릉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1973.
5		공주 서혈사지	安承周, 「公州 西穴寺址에 關한 調査研究 (二)」, 『百濟文化』 5, 1971. 2차조사
6	1972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舊石器文化」,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74. 9차발굴
7	1974년	공주 석장리유적	孫寶基, 「Paleolithic Excavation in Korea」,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1975. 10차발굴
8		보령 성주사지	동국대학교박물관, 『佛敎美術』 2, 1974.
9	1975년	부여 송국리유적	姜仁求 外, 『松菊里』 I, 1979. 池健吉 外, 『松菊里』 II, 1986.
10	1976년	부여 송국리유적	姜仁求 外, 『松菊里』 I, 1979. 池健吉 外, 『松菊里』 II, 1986. 2차조사
11		아산 남성리유적	韓炳三 外, 『南城里石棺墓』, 국립중앙박물관, 1977.
12	1977년	대전 내동리지석묘	池健吉, 「大德 內洞里 支石墓遺蹟發掘」, 『百濟研究』 8, 1977.
13		부여 송국리유적	姜仁求 外, 『松菊里』 I, 1979. 池健吉 外, 『松菊里』 II, 1986. 3차조사
14		대전 사성리지석묘	충남대박물관, 「沙城里支石墓發掘調査」, 『大清댐水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1978.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5	1977년	대전 彌勒院址	충남대박물관, 「彌勒院址發掘調査」, 『大清澁水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1978.
16		執端宋公 遺墟	충남대박물관, 「집단송공유허발굴조사」, 『大清澁水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1978.
17	1978년	대전 주산리고분군	尹武炳, 「注山里古墳群發掘調査」, 『大清澁水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1978.
18		부여 송국리유적	姜仁求 外, 『松菊里』 I, 1979. 池健吉 外, 『松菊里』 II, 1986. 4차조사
19	1979년	논산 표정리고분군	서성훈 외, 「표정리백제폐고분조사」, 『中島』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20		공주 웅진동고분군	安承周, 「公州 熊津洞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 14, 1981.
21		부여 정림사지	尹武炳, 『定林寺』, 충남대박물관, 1981.
22		부여 두곡리고분군	徐聲勳, 「豆谷里百濟廢古墳群」, 『考古學』 5·6합집, 1979.
23	1980년	부여 정림사지	尹武炳, 『定林寺』, 충남대박물관, 1981. 2차조사
24		부여 정암리고분군	洪斌基 外, 「扶餘亭岩里古墳群」, 『中島』 II, 국립중앙박물관, 1981.
25		공주 공산성	安承周, 『公山城』, 1982.
26		서산 해미읍성	尹武炳, 『海美邑城內 建物址 發掘報告書』, 忠南大博物館, 1981.
27	1981년	서산 해미읍성	尹武炳, 『海美邑城內 建物址 發掘報告書』, 忠南大博物館, 1981. 2차조사.
28		논산 표정리고분군	徐聲勳 外, 「表井里百濟廢古墳調査」, 『中島』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29	1982년	부여 쌍북리요지	尹武炳, 「扶餘 雙北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 『百濟研究』 13, 1982.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30	1982년	부여 백제왕궁지	충남대박물관, 『扶餘宮北里 百濟遺蹟發掘報告』 I, 1985.
31	1983년	예산 사면석불	박영복 외, 「禮山 百濟 四面石佛 調査 및 發掘調査」, 『文化財』 16, 1983.
32		공주 공산성	安承周, 「公州 公山城에 대하여」, 『文化財』 17, 1984.
33		부여 부소산성	張慶浩 外, 「扶蘇山城內 建物址 發掘調査略報告」, 『文化財』 17, 1984.
34		부여 백제왕궁지	충남대박물관, 『扶餘宮北里 百濟遺蹟發掘報告』 I, 1985.
35		부여 태양리고분군	李康承 外, 「扶餘 太陽里 百濟古墳 一例」, 『百濟文化』 15, 1983.
36		천안 목천토성	尹武炳, 『木川土城』, 충남대박물관, 1984.
37		서산 대로리주거지	한영희, 「서산 대로리움집터유적」, 『中島』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38	1984년	부여 정림사지 蓮池	尹武炳, 「扶餘 定林寺址 蓮池遺蹟 發掘調査報告書」, 『百濟研究』 18, 1987.
39		보령 보령리고분군	成周鐸 外, 「保寧 保寧里百濟古墳 發掘調査報告書」, 충남대박물관, 1984.
40	1985년	천안 蛇山城	成周鐸 外, 「稷山 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百濟研究』 16, 1985.
41		논산 표정리고분군	安承周 外, 『論山 表井里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42		부여 송국리유적	池健吉 外, 『松菊里』 II, 1986.
43		부여 용정리유적	尹武炳 外, 「扶餘 龍井里 百濟建物址 發掘調査報告」, 『百濟研究』 18, 1987.
44	1986년	논산 육곡리고분군	安承周 外, 『論山 六谷里古墳群發掘 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45	1986년	보령 교성리주거지	『保寧 校城里집자리』, 부여박물관, 1987.
46		천안 蛇山城	成周鐸 外, 『稷山 蛇山城』,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4.
47		공주 공산성	安承周 外, 『百濟推定王宮址發掘 調査報告書』, 공주사대박물관, 1987.
48		논산 개태사지	尹武炳, 「開泰寺 三尊石佛 創建基壇 調査報告」, 『百濟研究』 17, 1986.
49		부여 송국리유적	池健吉 外, 『松菊里』 III, 1987.
50	1987년	천안 蛇山城	權兌遠, 「蛇山城攷 - 百濟山城 構造의 한 事例-」, 『馬韓百濟文化』 11, 1988.
51		공주 남산리고분군	安承周 外, 『公州 南山里・松鶴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52		공주 송학리고분군	安承周 外, 『公州 南山里・松鶴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53	1988년	부여 정암리와요지	金誠龜 外, 『扶餘 亭岩里 가마터』 I, 國立扶餘博物館, 1988.
54		부여 부소산성	홍성빈, 「扶蘇山城 東門址 및 그 周邊 城壁 發掘調査略報」,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紀念論叢』, 1990.
55		공주 송산리고분군	尹根一, 「公州 宋山里古墳 發掘調査概報」, 『文化財』 21, 1988.
56		서천 칠지리고분군	安承周 外, 『舒川 漆枝里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9.
57		공주 웅진동고분군	李南奭, 「百濟時代 石築墓의 一考察」, 『百濟文化』 18・19合輯, 1989.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58	1988년	서산 고남리패총	金秉模 外, 『古南里貝塚』,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0.
59	1989년	부여 부소산성	洪性斌, 「扶蘇山城 東門址 및 周邊城壁 發掘調査略報」, 『昌山金正基博士華甲紀念論叢』, 1990.
60		홍성 성호리고분군	安承周 外, 『洪城 星湖里百濟古墳群 發掘 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61		홍성 神衿城址	李康承 外, 『神衿城』, 충남대박물관, 1994.
62		공주 금학동고분	安承周 外, 『公州 錦鶴洞・新基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1.
63		부여 전천왕사지	김종만, 「扶餘 傳天王寺址 試掘調査概報」, 『박물관신문』 220, 1989.
64		서산 고남리패총	金秉模 外, 『安眠島 古南里貝塚』, 한양대박물관, 1990.
65		공주 공산성	安承周 外, 『公山城 建物址』, 1996.
66		개태사지	尹武炳, 『開泰寺』 I, 충남대박물관, 1993.
67		금산 장대리고분군	崔秉鉉 外, 『錦山 場垈里古墳群』, 한남대박물관, 1997.
68	1990년	부여 정암리요지	中光燮 外, 『부여 정암리가마터』 II, 부여박물관, 1992.
69		천안 청당동고분군	徐五善 外, 『松菊里』 IV, 1993.
70		공주 남혈사지	『南穴寺址』, 공주박물관, 1993.
71		공주 보통골고분군	安承周 外, 『公州 보통골古墳群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3.
72		공주 구룡사지	李南奭 外, 『九龍寺址』, 공주대박물관, 1995.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73	1990년	공남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74		홍성 신금성지	李康承 外, 『神衿城』, 충남대박물관, 1994.
75		태안 고남리패총	金秉模 外, 『安眠島 古南里貝塚』, 한양대박물관, 1990. 2차조사.
76		부여 나성	윤무병, 「부여나성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1990.
77	1991년	공주 구룡사지	李南奭 外, 『九龍寺址』, 1995.
78		부여 산직리 수전지	보고서 미간
79		보령 성주사지	보고서 미간
80		공주 공산성	李南奭, 『公山城 建物址』, 公州大博物館, 1996.
81		부여 정암리와요지	中光燮 外, 『扶餘 亭岩里가마터』Ⅱ, 1992.
82		부여 지선리고분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扶餘 芝仙里古墳群』, 1991.
83		부여 용정리사지	부여문화재연구소, 『龍井里寺址』, 1993.
84		부여 산직리지석묘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산직리 고인돌』, 1993.
85		천안 화성리고분군	金吉植 外, 『天安 花城里百濟墓』, 공주박물관, 1992.
86		공주 수원사지	李南奭 外, 『水源寺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87		보령 성주사지	보고서 미간
88		천안 청당동유적	徐五善 外, 「清堂洞發掘調査報告書」, 『固城貝塚』, 1992.
89		공주 신기동고분군	安承周 外, 『公州 錦鶴洞・新基洞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2.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90	1991년	부여 나성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91		부여 공남지	中光燮 外, 「扶餘 宮南池 2・3次 發掘調査 概報」, 『考古學誌』 5, 1993.
92		공주 학봉리요지	「지도위원회의 자료」
93		부여 추정왕궁지	보고서 미간
94	1992년	부여 송국리유적	金吉植, 『松菊里』 IV, 國立公州博物館, 1993.
95		부여 구아리유적	부여문화재연구소, 『扶餘舊衙里 百濟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3.
96		부여 나성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97		보령 성주사지	보고서 미간
98		논산 모촌리고분군	安承周 外, 『論山 茅村里百濟古墳群發掘 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3.
99		홍성 신금성	李康承 外, 『神衿城』, 충남대박물관, 1994.
100		공주 구룡사지	李南奭 外, 『九龍寺址』, 1995.
101		공주 석장리유적	보고서 미간
102		부여 부소산성	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 1995.
103		부여 공남지	中光燮 外, 「扶餘 宮南池 2・3次 發掘調査 概報」, 『考古學誌』 5, 1993.
104		부여 동남리유적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05		부여 천왕사지	부여문화재연구소, 『扶餘 傳天王寺址』, 1994.
106		태안 고남리패총	金秉模 外, 『安眠島 古南里貝塚』, 漢陽大博物館, 1993.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07	1993년	천안 남산리유적	李漢祥, 『天安 南山里高麗墓』, 국립공주박물관, 1995.
108		부여 나성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09		부여 부소산성	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Ⅱ, 1997.
110		공주 공산성	李南奭 外, 『公山城池塘』,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111		보령 성주사지	보고서 미간
112		부여 전천왕사지	여문화재연구소, 『扶餘 傳天王寺址』, 1994.
113		천안 청당동유적	咸舜燮 外, 『淸堂洞』Ⅱ, 1995.
114		부여 송국리유적	金吉植, 『松菊里』Ⅴ, 국립공주박물관, 1994.
115		태안 고남리패총	金秉模 外, 『安眠島 古南里貝塚』, 한양대학교박물관, 1995.
116		천안 장산리유적	李康承 外, 『天安 長山里遺蹟』, 충남대학교박물관, 1996.
117		논산 모촌리고분군	安承周 外, 『論山茅村里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Ⅱ,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4.
118	1994년	보령 관산리유적	尹世英 外, 『館山里』Ⅰ,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996.
119		부여 나성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20		아산 군덕리유적	李南奭, 『君德里 住居遺蹟』,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121		천안 청당동유적	咸舜燮 外, 『淸堂洞』Ⅱ, 1995.
122		서천 오석리유적	李南奭, 『烏石里遺蹟』,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23		부여 부소산성	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 1997.
124	1994년	보령 성주사지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25		태안 고남리패총	金秉模 外, 『安眠島 古南里』, 한양대학교박물관, 1995.
126		천안 백석동유적	李南奭 外,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127		부여 동남리유적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28		아산 신달리유적	成洛俊 外, 「牙山 新達里 先史住居址 發掘 報告」, 『淸堂洞』 II, 1995.
129		보령 관창리유적	李弘鐘 外, 『寬倉里 周溝墓』,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997.
130		서천 한성리유적	보고서 미간
131		천안 남관리유적	李南奭, 『南館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1996.
132		공주 하봉리유적	徐五善 外, 『下鳳里』 I, 국립공주박물관, 1995.
133	1995년	서천 장암리패총	보고서 미간
134		부여 나성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35		천안 위례산성	任孝宰 外, 『天安 慰禮山城』, 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136		부여 궁남지	崔孟植 外, 「扶餘 宮南池內部 發掘調查 概報」, 『韓國上古史學報』 20, 1995.
137		보령 성주사지	보고서 미간. 6차 발굴
138		천안 백석동유적	李南奭 外,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2차 발굴
139		부여 부소산성	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 1997.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40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998.
141	1995년	보령 평라리유적	李隆助 外, 『보령 평라리선사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142		보령 천방유적	李南奭 外, 『千房遺蹟』(보령댐수몰지역 발굴조사 1),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143		보령 용수리요지	梨大博物館 外, 『陶窯址發掘報告』, 韓國水資源公社, 1996.
144		보령 명천동고분군	李南奭 外, 『保寧 鳴川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6.
145		공주 교동유적	趙原昌, 「公州 校洞遺蹟 試掘調査」, 『各地遺蹟調查報告』, 1998.
146		서천 장암진성	金鍾萬 外, 『舒川 長巖鎭城』, 1997.
147	1996년	공주 艇止山遺蹟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48		공주 분강리고분군	李南奭, 『汾江・楮石里古墳群』, 公州大學校博物館, 1997.
149		부여 저석리고분군	李南奭, 『汾江・楮石里古墳群』, 公州大學校博物館, 1997.
150		천안 위례산성	任孝宰 外, 『天安 慰禮山城』,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1997.
151		천안 백석동유적	李南奭 外,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152		천안 쌍용동유적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53		부여 성흥산성	安承周 外, 『聖興山城門址發掘調查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1996.
154		부여 능사	中光燮 外, 「扶餘 陵山里建物址發掘調査 概報」, 『考古學誌』 5, 1994.

## 제 2 장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

번호	조사시기	유 적 명	비 고
155	1996년	부여 송국리유적	보고서 미간
156		공주 주미사지	李南奭 外, 『舟尾寺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157		공주 상왕동유적	李南奭 外, 『上旺洞・陵峙遺蹟調査』,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158		공주 능치유적	李南奭 外, 『上旺洞・陵峙遺蹟調査』,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159		공주 웅진동고분군	李南奭 外, 『公州 熊津洞古墳群』,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6.
160		천안 양곡리유적	李南奭 外, 『天安 陽谷里粉靑沙器窯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161	1997년	공주 취리산유적	李南奭, 『就理山』,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162		연기 운주산성	공주대박물관, 『雲住山城』, 1998.
163		서산 대죽리패총	보고서 미간. 「지도위원회의 자료」
164		홍성 석성산성	상명대박물관, 『洪城 石城山城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1997.
165		부여 부소산성	「지도위원회의 자료」
166		천안 용원리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167		서산 무장리요지	「지도위원회의 자료」

백제 추정왕궁지 역시 다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 자체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추정 왕궁지는 말 그대로 사비시대 백제왕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인데, 실제로 이곳에서 백제의 왕궁유적이 확인된다면 백제역사재현단지내에 왕궁촌을 좀더 생동감있게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왕궁임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이미 민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있어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조사 3기에는 학술발굴과 구제발굴이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속속 확인되어 재현단지 조성에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사 3기의 초기까지만 해도 확인된 백제유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은 유적을 통해 축적된 불완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공주 주변에 있는 서혈사지·남혈사지·동혈사지 등을 백제시대의 혈사로 착각한 것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후대에 만들어진 유적을 백제시대 것인양 판단하는 경우가 더러 보인다. 다만, 이 시기에 들어서서 종래와 달리 조사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을만 하다. 공주·부여 이외에 금산과 연기·천안·아산·서산·태안·보령·홍성·청양·서천·논산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사된 유적의 종류도 종래의 고분, 사지 위주에서 벗어나 고분이나 사지 이외에도 성터, 요지, 패총, 선사 주거지 등이 속속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 2기 때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사실인데, 이러한 내용의 다양성은 재현단지 조성시 백제문화의 내용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재현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구제발굴 조사현황

<표 1-1,2,3,4>는 97년까지 충남지역에서 진행된 발굴조사를 종합한 결과이거니와 다른 시대에 비해 백제시대에 대한 유적 조사 예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최근 몇 년 사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조사 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촌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자료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가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내용을 실증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공장부지 조성,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질 때 함께 이루어지는 구제발굴(救濟發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 2-4> 조사 3기의 충남지역 유적 조사 현황표

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원삼국	백제	삼국이후	계	연간건수
일 제 강점기						8		8	0.3
1916 - 1959								0	0
1960 - 1969	5	1	21			31		58	5.8
1970 - 1979	3		23			49	1	79	7.9
1980 - 1989			12			79	3	94	9.4
1990 - 1998	3	1	7	2	2	44	2	59	14.7
계	11	2	63	2	2	214	5	299	6.3

이러한 구제발굴은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개발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발굴조사의 계획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유적을 검토·분석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충분히 시간이 없다. 게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확인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별반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의 조사의 수와 비례하여 개발사업에 일정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조사될 내용을 미리 가상해 보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와 곧 파괴될 유적의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활용에 있어서 차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간 충남지역에 진행된 발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더 분명해 진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가 대부분 구제발굴이었다는 사실은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한층 명확해 진다. 1998년 1월 현재 충남 도내에는 34개소의 국가 사적지가 있다. 그 중 18개소는 백제시대의 유적지다. 사적지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중요 기념물이다.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정해진 것이 사적이다. 그러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백제 사적지에 대한 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지는 지표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유적의 축조 시기에 이론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백제유적이라서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백제유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발굴조사가 부진한 데에 원인 있다. 조사의 부재로 말미암아 정작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 문화내용은 참고할 수 없고, 기타 주변지역의 문화내용을 토대로 역사재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조사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내용을 입증할 실질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자의 지식의 정도,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표 2-5> 충남지역 소재 국가사적 조사 현황표**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1	4호	부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1-1	63. 1. 21.
2	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4	"
3	12호	공주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2	"
4	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 5	"
5	14호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
6	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 1-1	"
7	44호	부여 군수리사지	부여읍 군수리 19	"
8	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565	"
9	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	"
10	60호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3	"
11	89호	부여 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83	"
12	90호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13	99호	부여 쌍북리요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30-14	63. 1. 21.
14	105호	칠백의총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52-1	"
15	109호	아산 맹씨행단	아산시 배방면 중리	"
16	112호	이 충무공 묘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 2-1	"
17	116호	해미읍성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16	"
18	135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	64. 6. 10.
19	155호	이 충무공 유허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84 - 1	67. 3. 18.
20	156호	중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 88	67. 3. 25.
21	229호	매헌 윤봉길 의사 사적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 40-1	72. 10. 14.
22	230호	유관순열사 유적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용두리	72. 10. 14.
23	231호	홍주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	72. 10. 14.
24	249호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 24-1	76. 12. 31.
25	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83. 3. 26.
26	307호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84. 8. 13.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27	316호	서산 보원사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87. 7. 18.
28	321호	죽도 앞바다 고려청자 매장 해역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죽도 앞바다	87. 9. 18.
29	333호	공주 학봉리 도요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12	90. 8. 16.
30	334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	90. 10. 26.
31	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1	92. 5. 9.
32	383호	논산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93. 10. 18.
33	387호	우금치 전적지	공주시 금학동 산 78-1	94. 3. 17.
34	393호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 1-1	95. 8. 2.

예를 들어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조사라는 것은 일제 식민통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일본문화와의 관계만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적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능산리고분군과 송산리고분군을 조사하고 이들이 왕릉임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정림사지 5층석탑 역시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고 보고 이름도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불렀다. 식민사관에 의해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조사 목적이요, 결과였던 것이다. 백제문화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조사내용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끌어내는 결론은 항상 같은 것이었다. 해방 후 이러한 역사 인식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지만 몇몇 병폐는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이 사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실이다. 조사지역이 공주나 부여 등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그런가 하면 해방 후 초기에는 일본인들의 그릇된 백제사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역시 유적 보다는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적의 구조와 규모, 원래의 형태, 복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1971년에 있었던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사 연구 뿐만 백제유적 조사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확실히 1970년대 이후의 조사는 그 이전의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빈도가 많아지고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 특히, 1차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이 발표된 1978년 이후 매년 정기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온 것은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백제유적이 도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먼저 밝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이러한 기초자료를 챙기는 일에는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증유의 국토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순식간에 많은 유적들이 기초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1970년대의 기초조사 미비는 상당한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현재까지도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거니와 처음부터 계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여기 저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조사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재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의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lt;표 2-6&gt; 충남지역 소재 백제사적의 조사 현황표

연번	지 정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발굴조사 현황
1	4호	부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1-1번지	동문지, 남문지만 부분적으로 발굴
2	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4번지	연차적인 조사 중
3	12호	공주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2번지	1차 발굴조사 완료 성안마을 정비시작
4	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 5번지	일제시대 때 조사됨 발굴조사 완료 정비·복원 완료
5	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일제시대 때 조사됨 발굴조사 완료 정비·복원 완료
6	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 1-1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7	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부여읍 군수리 19번지	부분조사(일제시)
8	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가탐리 일대	부분조사 현황파악 안됨
9	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번지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0	60호	서천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3번지	지표조사만 실시 축성시기 파악 안됨 주류성 여부 미확인
11	89호	부여 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83번지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연번	지정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발굴조사 현황
12	90호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번지	지표조사 조사 실시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임존성 여부 미확인
13	99호	부여 쌍북리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 30-14	조사완료 조사완료 후 사적지정
14	135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번지	부분발굴 규모 미확인
15	156호	증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 88번지	지표조사 조차 실시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축성시기 미확인
16	301호	부여 정립사지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조사완료 가람배치 확인
17	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부여군 규암면 정암리 41번지	조사 완료 후 사적지정
18	393호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 1-1번지	지표조사만 실시 축성시기 미확인 지표조사로 사적지정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제1절 조사의 문제점

지금까지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유적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복원·정비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종합계획안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행정당국은 당연히 백제문화의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에서는 행정당국과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 취지로 본다면 95년 1월에 설립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정원이 28명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는 관리과와 개발과만 있을 뿐 백제문화권개발을 연구하고 기획할 부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적의 현황 파악에서부터 발굴조사, 정비·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단적인 예를 공주 공산성(公山城)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산성은 <표-3>에서 보듯이 1980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14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백제유적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부여 부소산성과 더불어 최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성 조사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에서 보듯이 10년 넘게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 동안 이렇다할 계획없이 조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처럼 공주지역은 백제 중기에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충남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따라서 성내에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그것은 아래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의 발굴 현황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백제의 왕성(王城)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공산성이 처음 축성된 시기와 축성 방법, 성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위치 등 백제시대에 이루어진 각종 사실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기의 유적들이 차례로 밝혀져 백제시대에는 성을 어떻게 사용하였고, 이것이 통일신라시기에는 다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이 된 후 백제 유민들에게 백제국의 멸망을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해 백제시대와는 전혀 다른 건물의 배치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백제국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아울러 신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건물을 세웠는지가 하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백제시대 이래의 건물이나 배치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백제유민들을 포용하고자 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에 통일신라 시기의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다면 그것은 백제 유민들에게 백제의 멸망을 기정 사실화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왕궁이 있던 곳 주변에서 별다른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유물만 통일신라 시대의 것들이 출토된다면 이는 기존의 백제유적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백제 고지(故地)를 통치해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어떤 건물을, 어디 어디에 배치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충남지역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공산성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종합계획 없이 발굴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백제유적을 찾은 후 그 다음해에는 조선시대 유적을 찾고, 다시 그 이듬해에는 통일신라 유적이나 백제유적을 찾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일관성과 목표 부재로 10년 넘게 발굴이 이루어져 왔지만 공산성이 축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축성된 것인지,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은 언제 축성된 것인지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벽의 전체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표3 - 1 > 공산성 발굴조사 현황표

연번	유 적 명	시 대	조 사 기 간	비 고
1	臨流閣址	百濟	1980. 9 - 1980. 10.	방형의 樓閣形 건물지 礎石 확인, 『三國史記』의 ‘臨流閣’ 실존 확인
2	晚阿樓址	朝鮮		上城 상단에서 건물기단 확인
3	將臺址	朝鮮	1982. 7 - 1982. 9.	각변 3칸의 적심석 확인
4	蓮池	朝鮮	1984. 5	장방형 석축 연못
5	晚河樓址	朝鮮	1984. 12 - 1985. 3.	연지와 금강 사이의 樓亭
6	陪門址	朝鮮	1985 - 1986	북벽에 있는 암문지 확인 입구부는 파괴되어 있음
7	靈隱寺 앞 建物址	百濟-新羅	1987. 9 - 1987. 11.	신라 금동불 6구 수습
8	推定 王宮址	百濟	1989. 8 - 1989. 11.	건물지와 원형 연못 확인
9	中軍營址	朝鮮	1989. 8 - 1989. 11.	8칸 건물지 및 부속 건물지
10	28間 建物址	統一新羅	1990. 7 - 1990. 9.	28칸 건물지와 4칸의 부속건물지
11	光復樓 앞 廣場	百濟-朝鮮	1990. 7 - 1990. 9.	건물지 파괴, 교란
12	掘建式 建物址	百濟	1990. 7 - 1990. 9.	굴건식 주공의 건물지
13	12角 建物址 ①	統一新羅	1991. 5 - 1991. 8.	12각의 대형 건물지
14	12角 建物址 ②	統一新羅	1991. 5 - 1991. 8.	대부분 파괴·유실
15	12間 建物址	統一新羅	1991. 5 - 1991. 8.	적심석만 잔존
16	西門址 안쪽 遺蹟	百濟-新羅	1991. 5 - 1991. 8.	건물지와 원형 석축 확인
17	貯藏穴	百濟	1993. 10 - 1993. 12.	원형 12개, 방형 1개 확인
18	建物址	朝鮮	1993. 10 - 1993. 12.	적심시설 확인
19	靈隱寺 앞 建物址	百濟	1993. 10 - 1993. 12.	연못 흔적 확인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공산성은 여러 차례의 수·개축을 거치면서 성벽의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둘레도 확대, 혹은 축소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어떤 성벽이 최초의 것이고, 어느 것이 후대에 개축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성벽의 둘레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임류각지나 백제 추정 왕궁터를 발굴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무계획하에서 발굴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나 위치, 방향 등에 있어서 학계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되었음에도 그러한 실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공산성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할 수도 있다. 나머지 유적들은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충남지역에는 많은 수의 백제 유적이 남아 있다. 이들은 사적으로 지정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적의 성격을 공산성 만큼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 실제로 백제유적인지의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것도 있다. 유적이 조사되지 않았으니 지정을 요청하는 행정 당국이나 지정하는 문화재관리국이나 모르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던 산성이 발굴조사 결과 백제유적이 아니라 신라 유적임이 밝혀진 일이 있는데,<sup>23)</sup> 발굴된 지역이 일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충남지역의 사적지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에서 중요한 백제유적이라고 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유적이 발굴 결과 백제유적이 아닌 다른 시대 유적으로 드러난다면 문화행정의 공신력에도 문제고, 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에게도 심각한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이건, 아니면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이건 간에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기본 성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22)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성지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관, 1990.

23) 충남대박물관, 「계족산성발굴조사약보고」, 1998.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다. 그것도 대부분의 행정이 그러하듯이 유적의 의미나 중요도와는 무관하게 차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복원·정비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참고로 붕괴된 부분을 복원한 것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비나 복원은 선물을 포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선물을 풀어볼 수 없는 일반인들이야 선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다만, 이 포장을 통해 선물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물의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포장이다. 그러나 내용을 준비하지도 않고, 준비했다손 치더라도 정작 포장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장하는 시공자나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내용과 잘 조화되는 훌륭한 포장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이 현재의 포장작업이다. 예를 들어 성흥산성(聖興山城)의 성벽은 성돌을 자른 기계톱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운주산성(雲住山城)의 성벽은 석재부터 성돌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포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포장이 유적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성흥산성은 지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성내에 어떠한 유적이 남아 있는지, 성벽이 어떤 방식으로 축성되어 있고, 그것이 언제 축성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 동성왕 때에 가림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성흥산성이 위치한 곳은 백제 가림현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종래에 학계에서는 성흥산성을 동성왕이 쌓았다는 가림성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현재 남아 있는 성흥산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이고, 백제 가림성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발굴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만 제기될 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정비·복원 공사가 시기상조였



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에 동문지와 남문지에 대한 간단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초축 시기가 백제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sup>24)</sup> 그렇다고 이것이 『삼국사기』에 보이는 가림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실제로 성의 축조 시기가 기록에 보이는 시기와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복원 사업은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전에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기준으로 붕괴된 부분만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재 남아 있는 성벽과 실제 유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곽 유적은 한번 축조하면 대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중간에 붕괴되든가 유실되든가 하면 그 부분만 다시 고쳐서 대대로 사용한다. 삼국시대 때 축성한 산성이라고 당시에만 사용되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축성한 필요에 따라 대대로 사용하는 것이 성곽유적이다. 그럴 경우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고 성벽을 복원하면, 백제산성에다 조선시대 성벽을 재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적 12호로 지정된 공산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공산성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대대적으로 개축하여 백제 당시의 모습이 이미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성들은 이렇게 성벽 전체를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보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부분적인 특징을 보고 전체 성벽을 복원한다면 이는 어린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는 모양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유적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염려도 있다.<sup>25)</sup>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24) 안승주·서정석, 『성흥산성문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6.

25) 예를 들어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의 경우 그 자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널리 알려진 정림사지 5층석탑이 세워져 있다. 이 석탑은 백제 석탑으로 익산 미륵사지석탑과 더불어 현존하는 2기의 백제 석탑중 하나인데, 명칭을 정림사지 5층석탑이라고 명명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석탑이 있는 곳에 백제시대부터 사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의 사찰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중인 복원작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문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에 다른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의  
목표와 과정이 담긴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  
도 하루 빨리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백제유적의 조사와 정비,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만  
보내면 아무리 기간이 연장되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한정된 자료를  
이 계속될 것이고, 부족한 자료를 극복하기 위해 포장에만 신경쓰다 보면 국  
적없는 개발사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통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  
은 조사 지역이 공주와 부여 일대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까  
지의 조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도내에 남아 있는 국가지  
정 문화재 184점 중 절반에 가까운 74점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이다. 즉,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비용을 바탕으로 백제문화권개발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백제문화권개발이라는 것은 충남지역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이해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해도 사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자료가 소홀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

---

그에 비해 ‘정림사’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이곳에 세워져 있던 사찰명이다.그런데  
정림사지 5층석탑이라고 부름에 따라 마치 백제시대 때 이곳에 있던 사찰이 ‘정림  
사’였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공산성 역시 마찬가지다. 각종 안내판에 백제 웅  
진 도읍 시기의 왕성이라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벽이나 성문이 마치  
당시의 성벽이나 성문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책자의 소  
개와 달리 현재 남아 있는 성벽과 성문은 모두가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이처럼 내  
용물과 포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있고, 자칫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사실을 전해줄 가능성도 있다.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특정지구로 공주와 부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권개발사업의 경우 백제권에 공주·부여와 함께 청양·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양·예산 등지에서는 ‘백제권’에 걸맞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은 개발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예산지역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산물인 임존성이 남아 있고, 사면석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양지역에는 이렇다 할 백제유적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백제권”이라고 이 지역을 구분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4대권은 기존 행정구역에 의한 구별을 탈피하고자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개발 여건상 비슷한 지역을 묶어서 새롭게 구분한 개발권역이다. 그러나 이 두 지역에는 이렇다할 백제유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지역에 백제유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에는 앞서 지적한 임존성과 사면석불이 있다. 다만, 이 두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이 실제로 백제유적인지, 그리고 주변에 관련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이 지역이 백제권이라는 것을 주저케 하는 것이다. 청양지역 역시 실제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계봉산성, 백곡리산성, 우산성 등의 산성 유적과 강정리고분군, 화암리고분군, 대박리고분군 등의 고분 유적은 백제유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이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백제유적으로 주장하기가 주저되는 것뿐이다.

이처럼 공주나 부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백제권으로 구분되고, 도내의 모든 도민들에게 이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이는 비단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이 두 지역만이 아니라 충남지역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곧 개발사업의 준비 미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어디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백제문화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조차 이러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에 표기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충남지역도 공주·부여와 서산지역의 문화유적 분포 현황이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지금처럼 작업이 진행된다면 10년 후에나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개발사업의 준비 소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당연히 조사지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의 불만이고조될 수밖에 없다. 마애삼존불로 유명한 서산이 그렇고, 황산벌과 계백장군 묘소가 있는 논산이 그렇다. 그러나 이들 지역민들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객관적인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유적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지구로 지정된 이유와 제외된 이유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자료가 미비되다 보니 당연히 소외된 지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각 지역의 문화유적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유적이 갖는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유적임에도 개발사업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공주의 대통사지는 『삼국유사』에 창건 동기와 시기가 나와 있는 대표적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인 백제 사찰이다. 현재까지로는 유적이 확인된 최초의 백제사찰인 셈이다. 백제시대 사찰은 이미 한성시대부터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적이 확인된 예는 없다. 공주로 천도한 후 성왕 때 세워진 이 대통사지가 유적이 확인된 최초의 백제 사찰인 셈이다. 여기에는 보물급의 석조(石槽) 1기와 당간지주 1기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대통사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화재 지정이 없는 실정이다. 사지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와 석조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사지 자체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나날이 민가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기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지 중의 하나인데도 전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양의 두릉산성은 사서(史書)에 보이는 두릉윤성(豆陵尹城), 혹은 두릉윤성(豆陵伊城)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 지정기념물 1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두릉산성은 기록에 의하면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더불어 백제가 멸망한 후 3년 동안 전개한 부흥운동의 핵심 거성 중의 하나였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이 실제로 백제 두릉윤성임이 확실하다면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아야 할 것이다.

부여의 왕흥사지(王興寺址) 역시 『삼국유사』에 그 창건 배경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서에 등장한 사지와 실제 유적이 부합되는 유적이다. 부여에 남아 있는 많은 일명 사지(逸名 寺址)와 비교해 본다면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도지정 기념물 33호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논산의 육곡리고분군과 황산성도 마찬가지다. 육곡리고분군에서는 백제고분으로써는 유례가 드문 은제관식(銀製冠飾)이 출토되었다. 전체 고분군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유물의 희소성이나 유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지정 기념물 95호 보다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황산성은 계백장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인 황산벌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산성이다. 따라서 이 산성이 황산벌 전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측

성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역시 발굴을 통해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이 밝혀진다면 사적지로 지정하고, 이 일대를 계백장군의 묘소와 연결시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는 군사통신촌이 들어설 예정이거니와 이러한 황산성 일대의 산성 구조와 배치를 참고로 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재현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적이든 도 지정기념물이든 아무런 지정도 받지 못하여 법적 보호장치 마저 없는 유적도 있다. 논산 가야곡면에 있는 매화산성은 백제 5방성(方城) 중의 하나로 생각되는 중요한 산성이다. 백제는 전국을 5개의 방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배치시켜 통치시켰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도에 해당되는 광역의 지방통치 조직이 방인 셈이다. 그 북방성은 공주의 공산성이 담당하였고, 동방성은 논산 은진지역으로 학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확한 산성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산성 유적의 분포 형태나 규모, 그리고 육곡리고분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매화산성이 당시의 동방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 매화산성에 대해서는 도에서조차 아무런 문화재 지정도 하지 않아 무관심과 방치 속에 나날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적은 하루 빨리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백제유적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핵심적인 산성의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그 설립의 취지나 방법의 타당성에 불구하고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로 벌써부터 학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려의 핵심은 다름아닌 자료부족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부족은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려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도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에 비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탓하지만 말고 도내 곳곳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여 재현단지로 조성하고, 유적이 남아 있는 현장은 현장대로 사실에 맞게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재현사업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대안 마련까지도 인색하다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충남의 미래를 보장하기 보다는 발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에서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시대부터 진행되어온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의 조사례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고분관련 유적이다. 이처럼 조사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균형잡힌 백제문화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게 되고, 백제 문화에 대한 연구 역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으며,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자료부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백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았던 사찰, 전쟁시 피난했던 산성, 그리고 죽어서 묻혔던 고분 등이다. 여기에 당시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던 요지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유적에 대한 올바른 실체가 구명되어야 비로소 균형잡힌 백제사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개발사업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고분 일변도의 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지적한 임존성의 경우, 그것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성이었던 “임존성”이라는 설만 전해져 올 뿐 그것이 실제로 백제시대 유적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표조사 조차 실시되지 않아 성내에 어떤 시설물이 남아 있는지, 성벽은 어떻게 축성되어 있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26)</sup> 이 성이 조사 결과 실제로 백제 임존성임이 밝혀진다면 외세에 대항하여 끝까지 항전한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으로써 더 없이 좋은 교육 현장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곳에 오르면 충남 서북부와 아산만 일대의 바다가 내려다 보여 누구에게나 시원한 눈맛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백제산성이라는 확증이 없다 보니 학계에서는 이성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발과 교육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 역사 연구나 백제문화의 복원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훌륭한 자료가 단지 조사의 미비로 별 가치없는 유적으로 전락

---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사적 90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신라문화권에 비해 자료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개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사면석불 역시 그것이 보물급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면석불을 모시던 사찰과 같은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산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청양이나 논산 등 도내 곳곳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이다. 문제는 자료가 없다는 것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개발의 소재, 연구의 소재로 활용할 “눈”이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어떻게 조사하여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문제점으로 또 한가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조사에서 너무나 ‘백제시대’라는 시간에 구애받은 감이 있다는 사실이다. 백제유적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다. 78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각종 조사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그것이 비록 일반적인 문화재조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명분은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백제시대 이전 유적이나 이후의 유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백제문화권개발이라는 것이 백제정신의 계승이요, 백제얼을 되새겨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초에 걸쳐 백제 고지(故地)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령, 비인 5층석탑, 부여 장하리 3층석탑, 계룡산 청량사지 쌍탑(남매탑) 등이 대표적인 백제계 석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석탑들이 대체로 백제가 멸망한 후 2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세워진 석탑들이기는 하지만 신라문화의 바람을 200여 년간이나 쫓고나서도 백제인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백제인들의 정신과 백제문화의 저력을 이 석탑



을 통해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답들이 비록 백제 시기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탑을 통해 백제인들의 정신, 그리고 거기에 깃들인 백제인들의 얼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이상 백제시대에 제작된 다른 유적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 멸망 후에 백제 고지(故地)에서 생겨난 이른바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은 백제 정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백제 시대에 조성된 유물이나 유적 못지 않게 조사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불거리가 없다고 하여 자꾸 불거리만 만들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시멘트개발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개발의 한계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들을 강구하여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향후 대책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조사하는 이유가 유적을 통해 백제문화의 진수를 살피고, 거기에 스며있는 백제의 얼과 슬기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이러한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조사 계획의 설정 및 그에 준하는 조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계획과는 무관한 채로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지적한 조사지역의 편중성, 조사 분야의 편중성은 바로 이러한 무계획적인 조사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사전에 아무런 계획없이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유적, 백제의 슬기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 백제문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 등을 효과적으로 발굴해 내지 못하고 주변에서 눈에 띄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것이고, 아울러 백제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1960년대에 지정된 문화재만을 고집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결과인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공주·부여지역에 조

---

27) 윤용혁, 「백제권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74 - 75쪽.

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한번 지정에서 누락된 유적은 계속해서 개발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요한 유적이 방치되고, 파괴되는데 일조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단시간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을 요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2005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주어진 기간 안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안만 고집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물론, 2005년이 지난다고 해서 충남의 문화재 행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충남지역 문화재 행정의 일부분이요, 선진적인 문화행정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단기적인 대안 검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유물에 대한 지명표 작성이다.

앞에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나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권 개발 등 백제관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개발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이 미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계획이 미비된 이유 중 하나는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문화재목록』은 국가, 혹은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한해 간단한 지정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정 이유나 지정된 유적·유물의 축조 시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더구나 지정에서 제외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문화재대관』에는 해당 유적이나 유물의 축조 시기와 함께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으나 이 역시 지정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마찬가지다.<sup>28)</sup> 또한 지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채 현황 설명에만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 사적이나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나마 백제유적이 모두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제유적이 실제로 도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지정된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와 같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적지를 지정하건 충청남도에서 도지정 기념물을 지정하건 간에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해당 유적이나 유물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울러, 도내 어디에 어떠한 백제유적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유적의 수와 종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황파악이 끝나야 그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유물에 대한 지명표 작성은 시급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을 시·군별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유적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것이 해당지역에 분포하는 백제유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표를 통해 각 시·군별로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유적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8) 충청남도, **문화재대관**, 1997.

&lt;표3-2&gt; 청양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 1. 고분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大朴里古墳群1	정산면 대박리 범골	판석재 지상에 노출	얼마 전까지 도굴이 이루어짐
2	大朴里古墳群2	정산면 대박리	도굴된 1기의 고분 노출, 토기 반출	주민들의 傳言
3	大朴里古墳群3	정산면 대박리	도굴된 고분 1기 노출, 얼마 전 도굴되어 유물 반출됨	수혈식, 혹은 횡구식 석실분 으로 판단됨
4	本義里古墳群	목면 본의리 동막	도굴된 고분 1기 노출. 횡구식, 혹은 수혈식 석실분으로 판단	80×150cm의 크기
5	安心里古墳群	목면 안심리 마근동	판석조 횡혈식 석실분, 유물도 반출	주민들의 傳言에 의함
6	大坪里古墳群	목면 대평리 대평골	석재가 지상에 노출	
7	池谷里古墳群	목면 지곡리 중계실	도굴된 3기의 고분 노출, 일제 때 대부분 도굴 됨	
8	樂只里古墳群	장평면 낙지리 소사천	도굴된 고분 1기 노출, 많은 고분이 있었다 함	노출된 고분은 대부분이 파괴 됨
9	大興里古墳群	청남면 대흥리	횡혈식 석실분	주민들의 傳言
10	厚德里古墳群	운곡면 후덕리	平斜(?)천정의 횡혈식 석실분	傳言에 의함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1	光岩里古墳群1	운곡면 광암리 2구	10여기 이상이 확인됨, 황혈식 석실분	토기, 官材, 관고리 수습
12	光岩里古墳群2	운곡면 광암리 2구 수령골	10여 기 이상이 분포, 황혈식 석실분	200×120cm 정도의 크기
13	光岩里古墳群3	운곡면 광암리 2구	3기의 도굴된 고분 확인, 할석으로 축조	
14	光岩里古墳群4	운곡면 광암리 고분터	도굴된 고분 여러 기가 노출되었다 매몰됨	황혈식 석실 분으로 추정됨
15	永陽里古墳群	운곡면 영양리 2구 양지편마을	도굴된 1기의 고분 노출, 황혈식 석실분	
16	水石里古墳群	대치면 수석리 독골	고분 석재가 흩어져 분포, 5기 이상이 분포	170-200×120cm 의 크기
17	江亭里古墳群	비봉면 강정리 갈망골	10여기 이상 분포 단면 6각형 황혈식 석실분	225×90cm의 크기, 연도길이 150cm
18	舍店里古墳群	비봉면 사점리 사점	3기의 도굴된 고분 확인, 석실 내부 노출	궁륭상 천장 주고도 확인됨
19	方閑里古墳群	비봉면 방한리 배암실	10여 이상 분포 고분 석재 2 - 3매 잔존	얼마 전까지 많은 도굴이 이루어짐
20	中墨里古墳群	비봉면 중목리 지국실	6 - 8기 분포 3 - 4기는 완전 파괴	단면 6각형 중앙 연도 황혈식 석실분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21	九在里古墳群	화성면 구재리 동두말	10여 기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됨	도굴시 金銅耳飾과 土器가 출토되었다 전함
22	廣坪里古墳群	화성면 광평리	도굴된 2기의 고분 확인, 벽면은 자연석, 개석은 판석	72×170cm 크기 의 개석이 노출
23	化岩里古墳群1	화성면 화암리 공덕	여러 기의 고분 확인 평천정 횡혈식 석실분	100×280×100cm (높이)의 크기
24	化岩里古墳群2	화성면 화암리 꽃피골	평천정 횡혈식 석실분이 여러 기 분포	140×360×105cm (높이)의 크기도 있음
25	化岩里古墳群3	화성면 화암리 새뜸	3기의 고분이 확인됨 판석+할석으로 구축	90×230cm, 90×230×90cm
26	學堂里古墳群	청양읍 학당리 여우실	대부분이 도굴되고 2기의 고분이 확인됨	동서 67cm, 남북 220cm
27	長承里古墳群	화성면 장승리 산수골	다수의 고분이 분포 자연석+판석	
28	山亭里古墳群1	화성면 산정리 정자동	3기의 파괴된 고분 잔존, 벽면은 판석	유물은 전혀 없음
29	山亭里古墳群2	화성면 산정리 산악골	파괴된 2기의 고분 잔존	석실 85 × 110cm
30	花江里古墳群	화성면 화강리 멀미	보존 양호한 고분 1기 잔존, 도굴된 상태	횡구식 석실분
31	正坐里古墳群	청양읍 정좌리 2구	고분 3 - 5기 노출 할석으로 축조	궁륭상, 혹은 터널형의 천장
32	信旺里古墳群	청양읍 신왕리	도굴된 고분 1기 노 출, 다수의 석재분포	평천정의 석실분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 2. 산성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德城里土城	정산면 덕성리 1구 벌초막	2단으로 축조된 토성 성의 둘레 250m	소수의 瓦片 수습
2	鷄鳳山城	정산면 백곡리 계봉산	편축식의 석성 성의 둘레는 560m	남문지 토기편, 와편수습
3	白谷里山城	정산면 백곡리	마안형의 토성 성의 둘레 400m	백제 토기편, 와편 수습
4	方閑里山城	비봉면 방한리 태봉	테뢰식의 토성 남문지(?) 확인	
5	赤樓里山城	청양읍 적루리 제미재	馬鞍形의 토성 보존 상태가 양호함	
6	軍糧里土城	청양읍 군량리 고군량들	산정식의 토성 남벽의 일부는 석축	석검이 수습되기도 하였다고 함
7	正坐里山城	청양읍 정좌리 1구	토석 혼축성 북,서,동벽이 양호	
8	테뢰산성	청양읍 적루리	토석 혼축성 東高西低의 지형	둘레 약 600m
9	牛山城	청양읍 읍내리 1구	포곡식의 석성 막돌로 축성	전체 둘레 965m

### 3. 유물산포지 및 기타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本義里窯址	목면 본의리 동막	와요지 분포 공주박물관에서 현장조사	와편이나 다른 유물은 없음
2	汪津里窯址	청남면 왕진리 창현	2개의 사비시대 백제 와요지 발견	발굴조사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표3-3> 예산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 1. 고분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만사리고분군	신양면 만사리	도굴된 고분 노출 단면 4각형의 형태	2기 이상이 확인됨
2	황계리고분군	신양면 황계리 '다박골'	3기의 고분이 확인	252×62cm 바닥에 부석
3	노전리고분군	광시면 노전리 '안골'	5-6기의 고분 확인 판석+할석 축조	동편연도의 황혈식 석실분
4	은사리고분군	광시면 은사리 '분도골'	2기의 고분 노출 석재 다수 노출	표실 너비 78cm
5	대야리고분군	대흥면 대야리 대골'	도굴된 고분 1기 확인, 단면 6각형	260×115×120cm
6	금곡리고분군	대흥면 금곡리 '세월'	도굴된 고분 노출 260×110×120cm	중앙 연도의 황혈식 석실분
7	사동리고분군	덕산면 사동리 '사직동'	도굴된 고분 3기 노출	단면 4각형의 평천정 석실분

#### 2. 산성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신속리산성	대흥면 신속리	테피식토성 문지와 건물지 확인	백제와편, 토기편 수습
2	상중리산성	대흥면 상중리	테피식 석성 동문지 확인	백제와편, 토기편 수습
3	임존성	대흥면 상중리 봉수산	테피식석성 문지, 건물지 확인 백제토기편 수습	둘레 2,450m 백제부흥운동군의 중심 거성
4	대천리산성	고덕면 대천리	테피식토성 백제와편 수습	둘레 380m
5	산성리산성	예산읍 산성리	토석혼축성 수구지, 문지 확인	백제시대 토기편, 와편 수습
6	상장리산성	고덕면 상장리 '개자시'마을	테피식 토성 건물지 확인	백제토기편 수습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표3-4> 논산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1. 고분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표정리고분군1	연산면 표정리 상표정	중앙연도식의 횡혈식 석실분	발굴조사
2	표정리고분군2	연산면 표정리 1구	13기의 석축묘	1979년 발굴조사
3	표정리고분군3	연산면 표정리 1구 산 15번지	9기의 석축묘	1981년 발굴조사
4	표정리고분군4	연산면 표정리 하표정	16기의 수혈식 석곽묘	1989년 발굴조사
5	육곡리고분군1	가야곡면 육곡리 벼슬부락	토기와 관고리 수습	수습조사
6	육곡리고분군2	가야곡면 육곡리	13기의 횡혈식 석실분, 은제관식 출토	1986년 발굴조사
7	신흥리고분군1	양촌면 신흥리	2기의 수혈식 석실분	1967년 수습조사
8	모촌리고분군	양촌면 모촌리	30여기의 수혈식 석실분, 은제환두대도 출토	1992년 발굴조사
9	덕암리고분군	연산면 덕암리 1구	약 20여기의 횡혈식 석실분	400여평 정도
10	표정리고분군5	연산면 표정리	수 십기의 고분이 분포	미조사고분
11	지경리고분군	상월면 지경리 2구 왕우내마을 뒷산	괴임식 천장구조의 석실분	도굴된 고분이 노출됨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번호	유적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고
12	상도리고분군	상월면 상도리	5 - 6기의 고분이 확인됨	도굴분
13	신충리고분군	상월면 신충리	수혈식, 혹은 횡구식으로 추정	노성산성 주변
14	노치리고분군	노성면 노치리	도굴로 파괴됨	주민들의 전언
15	하도리고분군1	노성면 하도리 성재동	경작으로 파괴됨 고분용 석재노출	석축묘
16	하도리고분군2	노성면 하도리 1구 요동마을	경작으로 파괴됨	백제토기편 수습
17	항월리고분군	광석면 항월리 유동마을	도굴 · 파괴됨 백제토기편 수습	백제시대 석축묘
18	병사리고분군	노성면 병사리	도굴된 고분이 지상에 노출됨	주민들의 전언
19	송당리고분군	노성면 송당리 송당마을	도굴 · 파괴된 고분	석실분 계통의 백제묘
20	엄사리고분군	두마면 엄사리 신도안	파괴된 백제시대 석실분	백제토기편 수습
21	채광리고분군	양촌면 채광리	높이와 너비가 1m 정도의 소형	고려시대 무덤과 흔재
22	산직리고분군	양촌면 산직리 승적골마을	파괴고분 분포	백제토기편 수습
23	신흥리고분군2	양촌면 신흥리	10여기의 고분 분포	백제토기편 수습, 신흥리산성 주변 에 자리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 2. 산성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황산성	연산면 관동리	성벽 대부분 파괴 문지 4, 건물지 5 할석으로 축성	백제토기편과 와편 수습
2	외성리산성	부적면 서외성리	이중산성의 형태 둘레 400m의 토성	백제토기편 수습
3	청동리산성	연산면 청동리	토축산성 대부분이 붕괴	백제토기편 수습
4	신흥리산성	양촌면 신흥리	둘레 400m의 토성 문지 3, 주변에 백제고분군 분포	백제토기편 수습
5	산직리산성	양촌면 산직리	마안형의 형태 문지 2, 우물 1 성의 둘레 400m	백제 토기편, 와편과 함께 분청사기 수습
6	황화산성	논산읍 등화동 산 1	둘레 840m의 토성. 문지, 건물지 잔존	의자왕이 놀던 곳으로 전함
7	노성산성	노성면 송당리 산 1	둘레 890m. 문지 2, 건물지 7	백제와편 수습
8	매화산성	가야곡면 양지리	둘레 1,550m 문지 3, 건물지 4	백제토기편 수습

### 3. 유물산포지 및 기타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병사리요지	노성면 병사리	밭에서 소토와 토 기편이 발견됨	승석문, 격자문 토기편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표3-5> 보령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 1. 고분

번호	유 적 명	위 치	특 징	비 고
1	보령리고분군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산 2번지	12기의 황혈식 석실분 확인	발굴조사
2	장현리고분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황혈식 석실분 병형토기, 삼족토기	수습조사
3	蘆川里古墳群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산 15-1번지	황혈식 석실분 금동제이식 출토	6 - 7세기
4	九龍里古墳群1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두침, 시유토기 출토	도굴 후 수습조사
5	九龍里古墳群2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차돌뱅이	13기 이상 분포 도굴된 채 방치	긴급조사 요망
6	柳谷里古墳群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수곡)	2기 이상 분포 도굴된 채 방치	
7	倉岩里古墳群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남전	다듬은 석재 사용 도굴되어 노출됨	보호대책 필요
8	新九里古墳群1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구산	석재가 지상에 노출	
9	新九里古墳群2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죽내	7 - 8기 확인 대관석으로 구축	보호대책 필요
10	東垓洞古墳群	보령시 동대동 원평	도굴로 파괴됨 개석과 연도 노출	5기 이상 확인
11	鳴川洞古墳群	보령시 명천동 이천	직경 8-10m의 봉분 공룡상이 대부분임.	발굴조사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유 적 명	위 치	특 징	비 고
12	内項洞古墳群	보령시 내항동 내송	석재와 함몰부 노출 수 십기 분포	보호대책 필요
13	冠堂里古墳群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20여 기 이상 분포 석재, 함몰부 확인	황혈식 석실분
14	松鶴里古墳群1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1구(척골)	도굴로 묘실 내부 노출	다듬은 할석으로 축조
15	松鶴里古墳群2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1구 남산박골	4 - 5기 정도 확인 고분용 석재 노출	주민이 토기 수습
16	隱浦里古墳群	보령시 주교면 은포2리 외평	2 - 3기 정도 확인 대관석으로 축조	
17	鳳城里古墳群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하조	10여 기 이상 분포 3-5기 지상에 노출	황혈식 석실분
18	大農里古墳群	보령시 미산면 대농리 당골	1기 확인 단면 4각형의 형태	황혈식 석실분
19	聖住里古墳群	보령시 성주면 성주5리	수 십기 확인 단면 4각형 형태	황혈식 석실분
20	黃龍里古墳群2	보령시 청라면 황용리 솔당이	2기의 고분 확인 대관석으로 축조	6 - 8기 정도 추가 분포
21	倉岩里古墳群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토광묘 토기, 대도, 철검 수습	1977년 수습조사
22	葛峴里古墳群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다듬은 석재로 축조	
23	花山洞古墳群	보령시 화산동 짐촌	2기 확인, 대관석 과 벽돌형 할석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2. 산성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倉岩里土城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월현	북동벽이 토루 문지시설	
2	巢松里土城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 내송	토성	세장한 타원 형, 둘레 300m
3	簞栗里土城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문지 확인 백제토기편 수습	
4	達山里土城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남벽은 盛土 동문지 확인	유물은 전혀없음
5	三谷里山城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토석혼축성 백제토기편 수습	
6	鎭唐山城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 주포면 보령리	석축산성 문지 3곳	"新"字銘 기와수습
7	古南山城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고남동)	산정식의 토성 건물지, 남문지	入保用 山城
8	我峴山城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아현	산정식의 석성	유물없음
9	臺峯山城	보령시 주포면 제석리 봉산	산정식의 석성 내탁외축	정상부에 10m 크기의 웅덩이
10	大川里山城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산정식 석성 승석문·격자문토기	

#### 3. 유물산포지 및 기타

유 적 명	위 치	특 징	비 고
천방유적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백제시대 와요지 백제와당 출토	발굴조사

<표3-6> 서천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1. 고분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옥포리고분군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구	3- 5기 확인	석실분
2	산천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10여 기 확인 지표상에 드러남	횡혈식 석실분
3	화산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수리넘어재	10여 기 정도 확인 4기는 지상에 노출	횡혈식 석실분
4	종천리고분군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어랭이재	1기만 확인됨 도굴로 지상에 노출	횡혈식 석실분
5	칠지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사동마을	16기 발굴, 횡혈식 · 횡구식 혼재	발굴조사
6	관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관리	3 - 5기 확인 도굴로 2기 노출됨	횡혈식 석실분
7	성내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관청	2 - 3기 확인 도굴로 노출됨	횡혈식 석실분
8	신송리고분군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1기 발굴	석곽분 발굴조사
9	둔덕리고분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 둔데기	1기 발굴	화장묘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0	당정리고분군	서천군 중천면 당정리 3구	1기 수습조사	토광묘(?)
11	수암리고분군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애미정골	3 - 4기 확인 도굴로 지상에 노출	황혈식 석실분
12	풍정리고분군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분터골	석재가 지상에 노출 황구식 석실분	토기 8점 출토 발굴조사
13	오석리고분군1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기동마을	토광묘, 황혈식석실분	발굴조사
14	오석리고분군2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진재	현황파악 불가	주민들의 전언
15	한성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마동	도굴된 흔적 다수	토광묘로 추정
16	덕암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조고산	지상에 석재 노출	석실분으로 추정
17	계동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계룡	3 - 4기 확인, 지표상에 석재 노출	황혈식으로 추정
18	창외리고분군	서천군 화양면 창외리	석축고분 외형파악 불가	주민들의 전언
19	장선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아포	판석으로 구축	주민들의 전언
20	봉명리고분군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신기	2 - 4기 확인 도굴된 고분 노출	황혈식으로 추정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유적명	위치	지표상의 특징	비고
21	이사리고분군	서천군 마서면 이사리 갑저울	개석 및 석재 노출	토기편 수습
22	남당리고분군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통박골	파괴된 고분 1기 장벽 3단, 북벽은 관석 2매	횡혈식 석실분
23	성북리고분군 1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기럭재	개석 제거된 채 노출 벽돌형 석재사용	횡혈식으로 추정
24	성북리고분군 2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원덕굴	3 - 5기 확인 개석 제거됨	횡혈식으로 추정
25	두왕리고분군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돈담매	도굴로 파괴	석실분으로 추정
26	옥산리고분군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가장피마을	도굴로 파괴	주민들의 전언
27	신송리고분군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장마루	석재 노출	주민들의 전언

## 2. 산성

번호	유적명	위치	지표상의 특징	비고
1	성북리산성	비인면 성북리 새터말 뒷산	편축식의 석성 삼국시대 토기편수습	
2	월명산성	비인면 성내리 월명산	편축식산성	남쪽에 우물
3	장포리산성	비인면 장포리 포성대	土壘 20m 정도 잔존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4	장구리산성	종천면 장구리 테피산	석성으로 축성 토기편 수습	둘레 420m
5	한성리산성	마서면 한성리	삭토하여 구축 토기편 수습	둘레 320m
6	남산성	서천읍 남산리 · 마서면 봉남리	다듬은 돌로 축성 삼국-조선시대 유물	동문지 서문지
7	둔덕리산성	서천읍 둔덕리 테피산	석성으로 추정 토기 6점 수습	둘레 375m
8	지원리산성	문산면 지원리 산 5	토기편 수습 둘레 180m의 토성	
9	산천리산성	종천면 산천리 희리산	내탁식 축성 둘레 668m	망루 남문지

### 3. 유물산포지 및 기타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金德里瓦窯址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만덕부락	남사면에 자리, 일부 파괴 백제기와, 와당 수습	2기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표3-7> 서산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 1. 고분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明智古墳群	대산읍 대로리 명지부락	18기의 토광묘 분포 높이 40cm 정도의 분구	1969년 발굴조사
2	其隱里古墳群	대산읍 기은리 고양골	10여기의 토광묘군 추정 회청색 경질원저호출토	주민들의 전언
3	金鶴里古墳群	팔봉면 금학리 2구	도굴된 4-5기의 고분이 잔존함. 벽석은 할석, 개석은 판석으로 구축됨	황혈식 석실분
4	山城里古墳群	지곡면 산성리 2구 젓다리	도굴된 1기의 고분 확인 고분석재 다수 노출	부성산성과 지근거리에 위치

### 2. 산성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新松里山城	고북면 신송리 봉화산	편축식으로 축성된 석성 다듬은 성돌로 축성	둘레 약 600m
2	礪陽里山城	해미면 반양리 성재산	협축식의 석성, 막돌로 축성, 성문과 건물지	둘레 약 650m
3	富城山城	지곡면 산성리 부성산	편축식의 석성, 성벽 붕괴 건물지와 성문 확인	둘레 약 490m, 백제유물 수습
4	北主山城	서산시 부춘동 부춘산	편축식의 석성 성문, 건물지, 웅덩이 시설	둘레 약 760m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3. 유물산포지 및 기타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新井里土器 散布地	고북면 신정리 2구 윗 황골	서산 비행장 주변의 신정리 일대에 다수의 토기편 잔존	삼죽토기편, 병 형토기편

#### <표3-8> 아산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 1. 산성유적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鶴城山城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	다듬은 돌로 축성 서문지와 북문지 확인	
2	白岩里山城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편축식산성	
3	水漢山城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포곡식에 가까운 형태	
4	城內里山城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편축식산성 건물지와 문지	토기편 와편 수습

&lt;표3-9&gt; 천안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

## 1. 고분

번호	유적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도원리 고분군	천안시 병천면 도원 2리	도굴된 고분 2기 노출 황구식·수혈식 석실분	10여기 이상 추정
2	매송리 고분군	천안시 북면 매송리	도굴된 고분 1기 노출 황혈식 석실분으로 판단	平斜천정 형태 130×200cm 크기
3	미죽리 고분군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곰직'마을	노출된 고분 없음	주민들의 전언 (토기 2점 출토)
4	천흥리 고분군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편 수습	얼마전 고분이 도굴되었다 함
5	삼곡리 고분군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	토기편 약간 수습	주민들의 전언 (석실분 분포)
6	대정리 고분군	천안시 성남면 대정리 '초정'마을	도굴된 고분 2기 노출 석실내에서 철정 확인	황혈식 석실분
7	용원리 고분군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돌고개'마을	토기편 약간 수습	용원리 '용산'에서 백제고분 발굴
8	대흥리 고분군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 '능골'마을	토기편 약간 수습	토광묘나 소형 석실분으로 추정
9	화성리 고분군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백제 토광묘발굴 고분 추가 분포	東晉製 靑磁 출토 銀象嵌大刀 출토
10	신평리 고분군	천안시 수신면 신평리1구	토기편 수습	토광묘로 추정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1	독골고분군	천안시 수신면 신평리 '독골' 마을	토기편 다수 수습 도굴이 있었다는 전언	화성리유적과 지근거리에 위치
12	대덕리고분군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2구	지표상에 노출된 것은 없지만 횡혈식으로 추정	도굴로 많은 유물 이 반출되었다 함
13	보산원리고분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도굴된 고분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	횡혈식 석실분
14	석천리고분군	천안시 목천면 석천리 '떡방' 마을	도굴된 고분 1기 노출 고분석재 다수 분포	백제토기편 수습
15	서흥리고분군	천안시 목천면 서흥리 '웃말'	도굴된 고분 1기 노출 철제관정 1점 수습	平斜천정

## 2. 산성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1	청당동산성	천안시 청당동 도리티고개	편축식의 석성 성벽의 대부분이 붕괴	기와편 수습
2	일봉산성	천안시 용곡동 일봉산	馬鞍形의 토성 전체 둘레 300m	토기편, 기와편 수습
3	월봉산성	천안시 불당동 월봉산	테피식 토성 문지 1개소	백제토기편 수습
4	백석동토성	천안시 백석동	테피식 토성 문지 2개소	전면 발굴조사 완료
5	사산성	천안시 직산면 군동리 성산	복합식산성의 형태 서문지, 북문지 확인	발굴조사 완료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번호	유 적 명	위 치	지표상의 특징	비 고
6	세성산성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세성산	테피식 석축산성 동문지, 건물지 잔존	백제토기편 수습
7	두남리산성	천안시 풍세면 두남리 남산	테피식 산성 문지 없음	백제토기편 수습
8	광덕산성	천안시 동면 광덕리 광덕산	토석혼축성 동문지, 건물지 확인	토기편 수습
9	동성산성	천안시 동면 도원리 동성산	토석혼축성 문지 2개소, 건물지	토기편, 와편 수습
10	화계리산성	천안시 동면 화계리	성벽은 대부분이 붕괴 북문지, 건물지	토기편 수습
11	서림산성	천안시 동면 수남리 서림산	테피식의 석축산성 문지 2개소	백제 - 조선시대 의 유물 수습
12	성산산성	천안시 직산면 관서리 성산	테피식 토성 성벽이 대부분 붕괴	백제토기 수습
13	하장토성	천안시 동면 장송리	테피식 토성	토기편, 와편 수습

표에서 제시되지 못한 시·군은 아직까지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군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백제유적의 현황표가 완성되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지명표작성을 강조하고 싶다.

유물·유적에 대한 지명표가 작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확인된 유적이나 유물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적절한 개발 방법이 떠오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떠한 개발 방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적이나 유물이 본래 갖고 있었던 의미를 제

대로 부각시키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유적이나 유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정문화재 자체가 깊은 고려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지정문화재의 현황이 이렇다면 반대로 지정되지 못한 유적 중에도 새로이 지정을 받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그것이 지정문화재단, 그렇지 않으면 비지정문화재단 간에 유적·유물 전체를 총망라한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지명표를 바탕으로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개발 방법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지명표를 통해 새롭게 유적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충청도에서는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다만, 사설기관인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 충청도내를 상대로 연차적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라도 하루 빨리 백제유적·유물에 대한 지명표가 제작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유물 지명표를 작성한다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지명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지표조사내용이 부족한 것이라면 도내에 있는 8개 조사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여 새롭게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에서 충당하면 가능할 것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내에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활동이 소극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겠지만 지금이라도 문화재위원회를 실질적인 위원회로 성격을 탈바꿈시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화재 조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쪽 분야에 조사가 편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수렴한다면 현재와 같은 무원칙한 조사와 개발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당국의 의지와 함께 문화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행정의 편의대로 위원회를 이끌어간다면 전문위원들이 등을 돌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문화재 위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실들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개발의 책임자도 선정하여 전문위원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찌보면 전문가들의 입장과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당국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문화재부분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차이는 입장 차이와 인식의 차이인 만큼 위원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도당국과 전문가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아니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계와 행정 담당자 사이의 견해차이를 줄이고,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도 문화재전문위원회는 새롭게 탄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전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그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충남도의 문화재행정은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위원회와 함께 한 가지 더 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는 말 그대로 백제문화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소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토록 한다면 이 또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는 연구·기획 부분이 취약점으로 되어 있다. 개발사업에 우선을 두다 보니 개발사업에 앞서 추진되어야 할 연구와 기획부분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기구를 개편하여 연구·기획부분을 보강한다면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한 기획·조사·개발 등을 사업소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조만간 재현단지 내에는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1999년 상반기 중에 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될 것이다. 박물관이 설립된다면 당연히 사업소에서 박물관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백제역사민속 박물관은 기존의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백제의 역사와 민속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새로이 확인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즉시 전달할 목표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가 백제역사민속박물관으로 체제를 정비하면서 새롭게 연구·기획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백제역사민속박물관)에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작업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2. 장기적인 대안검토

단기적인 대안이 임시방편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대안이라면 장기적인 대안은 좀 더 거시적이고, 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치유책에 해당된다. 그러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연구·개발할 새로운 전담기구를 만

드는 것이 그 첫째다. 앞서서도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문제점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백제유적의 효과적인 조사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재에도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기구나 담당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항해의 종착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는 그 동안 우리가 겪어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한 항해를 하루 빨리 멈추기 위해서는 나침반과 해도(海圖)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나침반과 해도를 준비할 기구나 담당자가 없으니 당연히 이러한 일을 도맡아 처리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침반과 해도를 준비할 전담기구는 백제유적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 효과적인 개발 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나 조사지역이 편중된 것, 그리고 조사분야가 편중되어 있는 것 등은 모두 이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에 공주·부여 중심의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주어진 비용과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 두 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백제금동대향로나 창왕명 사리감과 같은 백제 문화의 진수(眞髓)를 보여주는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백제문화는 이러한 왕족이나 귀족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문화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반인들의 관심은 도읍지 중심의 문화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남아 있는 지방문화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쏠려 있다. 즉, 무령왕릉이나 왕궁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지만 당시 일반 서민들의 삶의 방식 - 백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어떤 집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매장되었을까. 그들의 사랑과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학교 교육은 어떠했으며,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세금은 얼마나 부담했고,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됐을까 등등 - 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알고 싶어한다. 물론, 이러한 호기심 하나 하나를 모두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자료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론을 통해 유추해 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유일한 것이다. 그 동안 감추어졌던 문헌기록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장 조사의 길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주·부여 일변도의 발굴조사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다. 왕족이나 귀족과 관련된 찬란한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때마다 그에 못지 않게 ‘그럼 당시 일반 서민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좀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갖는 솔직한 호기심이다. 그런가 하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내륙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농민과 산악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도읍지와 지방, 농촌지역과 해안지역을 선정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이 마음놓고 연구와 기획에 종사할 전문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전담기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굴조사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조사의 현황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백제사 연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백제문화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것이 이미 1978년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백제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적인 열세로 인해 백제사 및 백제 문화의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실체를 구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부족이 백제사의 구명(究明)에 장애가 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 다가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은 백제의 역사를 방문객이 직접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촌, 풍속종교촌, 장제묘지촌 등으로 나누어 백제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볼거리가 부족하였던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가 하면 백제사나 백제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획기적인轉機가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별 역사촌 중에서 실제로 재현이 가능한 역사촌은 장제묘지촌에 불과하다. 그 동안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꾸준히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온 백제고분은 그 종류의 다양성과 구조, 주변 문화와의 관계, 출토유물 등이 어느 정도 구명된 상태다. 따라서, 다른 어느 역사촌 보다도 재현하기 쉽고, 또 참고 자료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역사촌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개국촌은 백제 개국초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개국초의 주거지나 생활유물 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편이다. 일반 서민들의 주거지나 관아터가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sup>29)</sup> 다만, 최근들어 미사리유적(湊沙里遺蹟)이 발굴되어 참고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복원을 위해서는 아직도 절대 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국촌에는 신석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각종 주거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sup>30)</sup>

29) 다만 성터 안에서 주거지가 발견된 예는 있다. 예를 들어 부소산성 내에서 1기의 수혈주거지가 발견된 바 있으며(홍성빈·장경호, “부소산성내 수혈주거”, **문화재** 17집) 천안 백석동 토성 내에서도 3기의 수혈주거가 발견된 바 있다(이남석, “백석동 토성”, **한국상고사학보** 29집).

30) 이강승, “고대주거지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조사연구보고서**(고건축분야), 충청남도, 1996, 9 - 64쪽.

부족한 자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폭넓은 시기의 주거지를 재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국촌이라고는 하지만 백제시대 보다는 그 이전 시기의 주거지 전시장인 될 공산이 크다. 백제 초기보다는 그 이전 시기의 주거지가 발굴된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왕궁촌은 백제의 궁궐을 재현하는 것이다. 궁궐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현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복원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궁궐 복원을 담당한 연구자의 고백이다.<sup>31)</sup> 사정은 다른 역사촌도 마찬가지다. 전통민속촌의 경우 아예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 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마을로 복원한다’고 되어 있다.<sup>32)</sup> 백제마을은 밝혀진 바 없으므로 결국 시대불명의 국적없는 마을이 되기 십상이다. 산업교역촌 역시 전통 농업·공업·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특산물 판매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립 취지나 설립되고 난 후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백제 역사촌 재현이 이렇게 하나같이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사 현황에서 밝혔듯이 최근 들어 발굴조사가 활기를 띠면서 조사 유적의 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존의 조사라는 것이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힌다거나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학술발굴이 아니라 도로 건설이나 공장 부지 등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거나 인멸될 염려가 있는 유적에 대한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제발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제발굴은 일정한 계획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적에 계획을 맞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연히 발굴된 유적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학문적으로나 개발이라는

31) 김동현, “고대궁궐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조사연구보고서**(고건축분야 충청남도, 1996, 162쪽).

32) 충청남도,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기본설계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114 - 120쪽.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집되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최근 들어 유적 조사의 예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촌 재현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도내에는 국립박물관 2개소, 국립문화재연구소 1개소, 각 대학 박물관 4개소, 발굴전문기관 1개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숫적으로 많은 조사 기관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에서 발굴하는 것은 거개가 구제발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기관으로부터는 역사촌 복원을 위한 새로운 자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과 달리 학술발굴만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발굴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에 대한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황에서 밝혔듯이 도내에는 34개소의 사적지가 있고, 이중 18개소가 백제시대의 유적이다. 사적이란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sup>33)</sup> 따라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완료된 곳은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쌍북리요지, 그리고 정암리요지 등 4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거나 그마저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축조 시기, 성격, 구조, 규모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백제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고자 하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이다. 복원 작업이 있을 때 마다 자료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적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지를 전담 발굴조사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도 전담기구의 몫이 될 것이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은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내용

---

33) 문화재보호법, 제 6조.

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한다면 유적이 경주처럼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넓은 지역을 쉽게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백제문화의 내용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부여를 벗어난 지역으로써 또 다른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는 서산·예산지역과 논산, 연기지역 등을 우선 들 수 있다.<sup>34)</sup>

서산지역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운산면 용현리에 마애삼존불이 있고, 예산에는 덕산면 화전리에 사면석불이 있다. 이 두 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그 서쪽과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더구나 마애삼존불과 지근거리에는 보원사지(사적 316호)라고 하는 큰 절터가 있고, 사면석불 주변으로도 많은 절터가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가야산 주변에는 수 많은 절터와 암자가 몰려 있어 경주이 남산과 같은 곳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공주나 부여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물론, 공주나 부여에도 절터는 있지만 마애불이나 사면석불은 없으며, 시대를 달리하여 이렇게 다양한 절터가 자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으로 꾸민다면 이 지역민들에게 백제유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한 백제유적이 갖고 있는 자료부족, 소재 빈곤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두 지역 주변에는 앞서 설명한 가야산과 온천이 있으며,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이 있고, 예산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임존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은 문화유적 감상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서산·예산

34) 이러한 작업도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충남지역 전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열거한 예산·서산과 논산지역은 그 동안 진행된 공식·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앞으로 지역별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지역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백제유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도내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현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 수행에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지역은 공주·부여지역에 버금가는 백제문화권 특정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논산지역 마찬가지로다. 논산지역은 공주·부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백제고분들이 확인되었다.<sup>35)</sup> 이러한 여러 유형의 고분들은 그 자체 중요한 학술적 자료인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에 백제무덤이라고 하면 서울 石村洞에 있는 積石塚이나 공주 武寧王陵, 그리고 부여 능산리고분군에 있는 石室墳 등만 알고 있던 일반인들에게는 이들 지역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새로운 墓制를 살펴보면서 새삼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논산지역에 백제 계백장군이 신라의 5만 군대와 맞서 최후의 전투를 벌인 현장이 남아 있고, 주변에 많은 성터도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논산지역은 백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호국정신의 역사적 현장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노력이 경주된 바 없어 당시의 戰場이었던 황산벌의 위치라든가, 계백장군이 신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三營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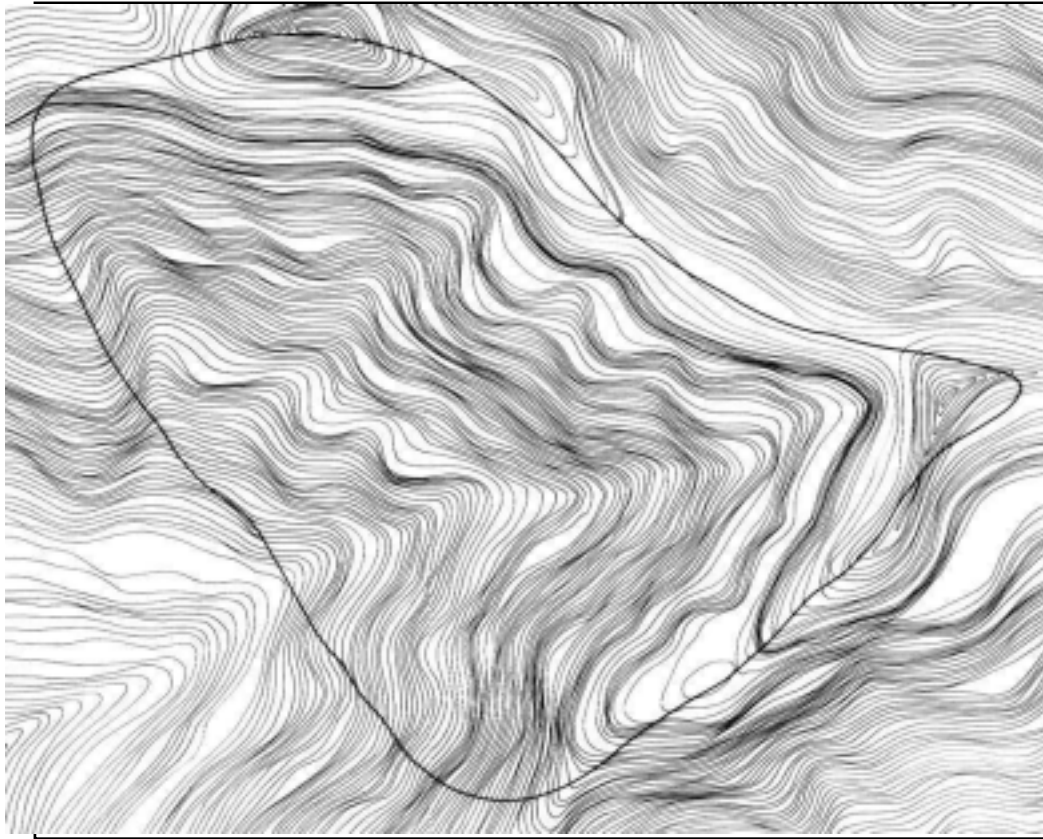
그러나 황산벌이 현재의 論山市 連山面 일대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고,<sup>36)</sup> 삼영(三營)의 존재는 황산벌 일대에 남아 있는 산

35)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백제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윤무병, “논산 신흥리고분과 그 출토유물”, **백제문화 7·8합집**,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5.
- ②안승주, 「논산 표정리고분과 토기」, **백제문화 9집**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6.
- ③윤무병, 「연산지방 백제토기의 연구」,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
- ④서성훈·신광섭, 「논산 표정리 폐고분」, **중도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 ⑤안승주·이남석, **논산 표정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 ⑥———, **논산 육곡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 ⑦———,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3.
- ⑧———,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Ⅱ)**,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4.

성을 대상으로 고증작업을 벌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면 1. 논산 매화산성 평면도



이러한 작업은 지역과 소재를 동시에 늘림으로써 종래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보증수표처럼 따라 다니던 불거리가 없다는 불만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당시의 戰場에 서서 약 1천 4백년 전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과 흥미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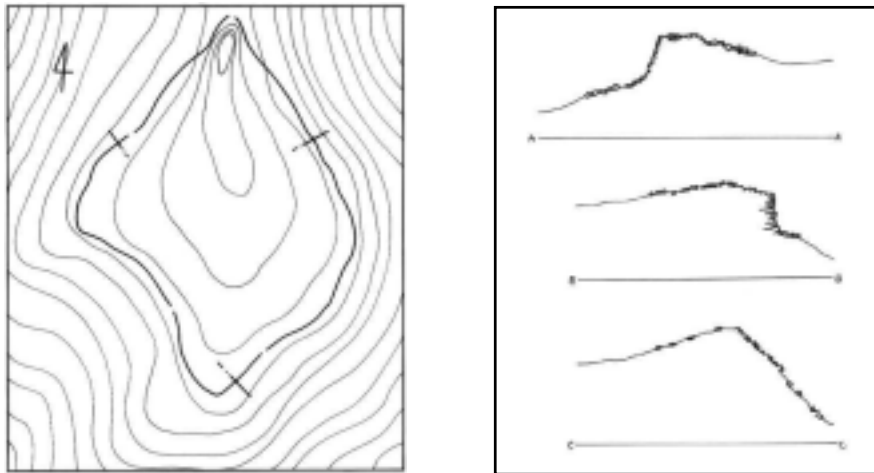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連山縣, 「山川」條. “黃山一云天在縣東五里 新羅金庾信將兵與唐蘇定方攻百濟百濟將軍階伯여 羅兵于黃山之野設三營…”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이다. 이 밖에 CYBER 백제역사문화관의 효과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자로서도 새로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각종 문화재 안내책자도 새롭게 제작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인 대안책으로 또 한가지 들고 싶은 것은 전문 인력의 확보문제이다. 지금처럼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은 백제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백제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나아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처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에도 결정적인 애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도면 2. 논산 황산성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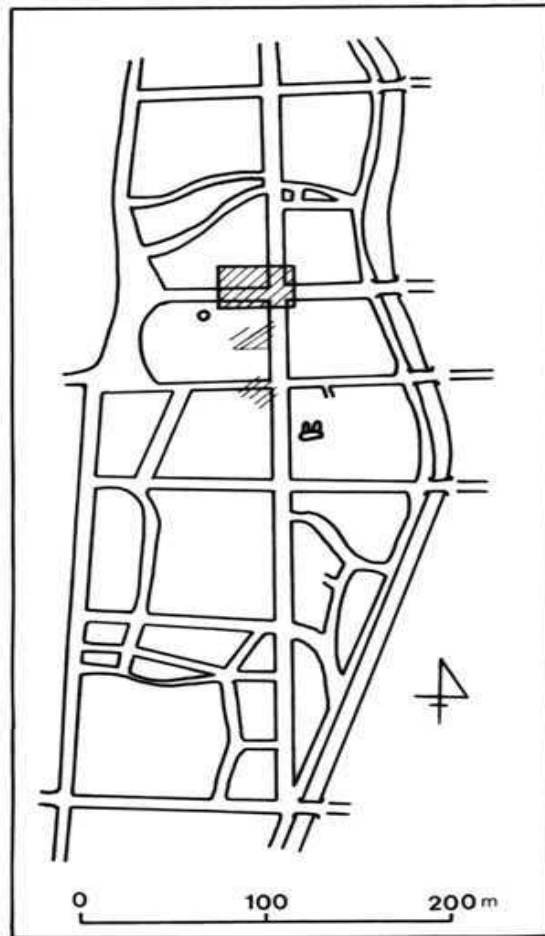


설령 새로운 전담 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원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렇게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가 조직화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이 있으며, 문화의 복원

### 제 3 장 조사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이나 재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충남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역 연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도면 3. 공주 대통사지 평면도



이렇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문인력이 마음 놓고 조사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백제사나 백제문화에 관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관심사를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있지 않다면 연구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남도내의 백제유적을 조사·연구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전문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할 사람들도 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이미 백제문화권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걸맞는 문화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의 문화재 담당자는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자는 일정 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문화 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제 4 장 결 론

### 제1절 결론

충남지역은 백제 중·후기 도읍지가 자리했던 지역으로 당시의 문화유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인 동시에 더 없이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이러한 백제 유적 이외에도 계룡산과 서해안,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계절성을 띠고 있는데 비해 백제유적은 4계절 가능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어 어느 자원보다도 개발에 유리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소득이 증대되면서 과거 조상들의 생활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백제문화권개발은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 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현재까지 충남 도내에서 조사된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합리적인 백제문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조사지역이 공주와 부여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고분유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백제가 건국하기 전에 백제 고지에는 모두 5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백제는 이들 소국의 전통을 인정한 위에서 영역을 통치하고, 문화를 꽃피웠다. 따라서 백제유적은 지역별로 특징을 띠는 문화유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문화유적이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이러한 특징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을 고려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무리하게 많은 백제유적을 한곳에 모아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징을 살린 문화내용을 복원하고, 이들을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연결 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조사 유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정비의 마스터플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한쪽 분야로 조사의 방향이 쏠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의 편중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자료 부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계획 의도와는 달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시대미상, 국적불명의 역사촌이 될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 제2절 제안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터인데,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대안과 장기적인 대안으로 나누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 유물·유적 지명표”를 하루 빨리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명표가 완성돼야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있는지가 밝혀지고, 그래야 조사의 순서 및 개발 방향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명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백제문화권특정지구’나 4대권 개발의 ‘백제권’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권역에 들지 못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도 도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권역 설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명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기존에 사설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해온 지표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내에 남아 있는 8개 조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시간내에 새롭게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제작에 필요한 재원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에서 마련하

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거나, 분야별로 치우쳐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토론장이 되어 그해 그해의 문화재 조사·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화재행정의 난맥상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당국의 의지와 관련 전문가들의 책임의식이 크게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울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은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감이 반감될 소지도 있다. 그에 비해 ‘사업소’는 백제문화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사업소’는 연구·기획 분야가 전혀 없는 만큼 ‘사업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구조를 새롭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백제유적의 효과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 및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누가 작성해야 되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자료가 부족한 분야는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사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조사 및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전담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곧 등장하게 될 Cyber 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작업도 새로운 기구의 몫이 될 것이다.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두 번째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꾀고 싶다.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성장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수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명확해 진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재는 효과적인 백제문화의 조사 및 연구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전통문화학교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교되기로 예정되어 있거니와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때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도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문 인력은 학계 뿐 아니라 행정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간 같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는 물론이고, 적어도 공주나 부여와 같은 시군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역사를 전공한 전공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전공자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忠淸南道, 『文化遺蹟總覽』(城郭・官衙篇), 1991.

忠淸南道, 『百濟文化圈特定地域綜合開發基本設計報告書』, 1993.

忠淸南道, 『文化財大觀』, 1997.

忠淸南道, 『百濟歷史再現團地造成調查研究報告書』, 1996.

忠淸南道, 『충청남도개도백년사』, 1997.

瑞山文化院, 『瑞山・泰安文化遺蹟』, 1991.

瑞山文化院, 『瑞山圈域文化遺蹟』, 1996.

瑞山市, 『서산시지』(제 7권 문화유적), 1998.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1輯 - 天原郡, 舒川郡, 保寧郡, 禮山郡, 燕岐郡篇 - ), 1986.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4輯 - 論山郡篇 - ), 1990.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5 - 牙山・溫陽市篇 - ), 1991.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6輯 - 唐津郡篇 - ), 199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7輯 - 天安市・天安郡篇 - ), 1993.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8輯 - 靑陽郡篇 - ), 1995.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9輯 - 禮山郡篇 - ), 1995.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10輯 - 舒川郡篇 - ), 1996.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 11輯 - 保寧郡篇 - ), 1997.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論山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1집, 1980.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瑞山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2집, 1981.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天安市 및 天原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4집, 1983.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禮山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5집, 1984.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保寧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5집, 1984.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燕岐郡 管内 古代 山城址 分布調査」, 『百濟研究』16집, 1985.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 『朝鮮古蹟圖譜』,  
朝鮮古蹟研究會, 『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古蹟研究會, 『昭和二年度古蹟調查報告』, 193.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193.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193.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 1940.
- 輕部慈恩, 『百濟遺蹟の研究』, 1971.  
安承周, 『公山城』, 公州大學校博物館, 1982.  
尹武炳,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Ⅰ), 忠南大學校 博物館, 1985.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蹟の遍歴』, 1986.  
安承周·李南奭, 『公山城 推定 百濟王宮址 發掘調査 報告書』,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87.  
安承周·李南奭, 『公山城 城址 發掘調査 報告書』, 公州大學校博物館, 1990.  
安承周·李南奭, 『公山城 建物址』,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6.  
安承周·李南奭, 『論山 表井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安承周·李南奭, 『論山 六谷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安承周·李南奭, 『公州 南山里·松鶴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安承周·李南奭, 『舒川 漆枝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1.  
安承周·李南奭, 『洪城 星湖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1.  
安承周·李南奭, 『論山 茅村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3.  
安承周·李南奭, 『論山 茅村里 百濟古墳 發掘調査 報告書』(Ⅱ),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4.  
沈正輔·孔錫龜, 『鷄足山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大田工大郷土文化研究所, 1992.  
忠南大學校博物館, 『鷄足山城發掘調査略報告』, 1998.  
安承周·徐程錫, 『聖興山城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1996.  
尹武炳, 「論山 新興里 百濟古墳과 그 出土遺物」, 『百濟文化』 7·8合輯,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75.  
安承周, 「論山 表井里 百濟古墳과 土器」, 『百濟文化』 9, 公州師大 百濟文化研究所, 1976.  
尹武炳·成周鐸,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8, 忠南大 百濟研究所, 1977.  
尹武炳, 「連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 『百濟研究』 10, 忠南大 百濟研究所, 1979.

- 朴永福, 「禮山 四面石佛의 考察」,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 安承周, 「百濟 寺址의 研究」, 『百濟文化』 16,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85.
- 윤용혁, 「백제문화권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 박서호, 「충남 백제권 개발전략」,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6.
- 이남석,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6.
- 여흥기,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열린충남』 제 2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6.
- 이강승, 「백제문화권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 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 이남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 서정석,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열린충남』 제 3권 제 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 李南奭, 「白石洞土城」, 『韓國上古史學報』 29輯, 1998.

▪ 집 필 자

서 정 석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기본연구 98-05

##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발 행 자 : 황 용 주(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발 행 일 : 1999년 5월 20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7층~18층

전화 : (042)472-1900

팩스 : (042)472-1912

인 쇄 처 : 필성인쇄사(042-252-16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